



서울대 同窓會 報

2002년 12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297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총동창회 지표 : 참여·협력·영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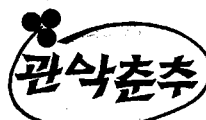
<http://www.snua.or.kr>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根 / 편집주간 李世震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FAX : 703-0755



윗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신년교례회에서 힘찬 새해를 기원하며 시루떡 절단, 제19대 林光洙회장 취임, 제4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에 吳仁錫·孫京植·黃禹錫동문 수상, 「관악 건론인회」 발기인 모임, 직업 직장별 명부와 CD-ROM TITLE이 담긴 「서울대 인명록」 발간, 재단법인 관악회 및 특지장학회 장학금 수여.
(커버스토리 5면)

단합 다져놓은 임오년, 아듀!



2002년 임오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 동창회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큰 교두보를 확보했다. 먼저 1년 전부터 추진해온 「서울대 인명록」을 직업, 직장별 명부와 함께 모교, 동창회 역사를 담은 「CD-ROM TITLE」을 한 세트에 묶어 완성한 것이다. 동문 28만5천명을 수록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울대 휴먼 리소스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지난 3월엔 제19대 동창회장으로 林光洙(임광토건 회장)동문을 선출, 동창회 체제를 정비했고, 7월엔 동문 언론인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모교 발전에 일조하고자 관악언론인회 창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해, 새해 2월엔 대망의 출범을 기약하게 됐다. 10월엔 제24회 홈커밍데이 행사가 우천에도 불구하고 2천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열려 친목과 단합의 시간을 가진 것을 비롯,

장학금 수여식 등 많은 동창회 연례행사도 알차게 진행됐다. 모교에서는 지난 7월 제23대 총장으로 鄭雲燦교수가 교내외의 많은 기대 속에 취임함으로써 서울대 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지금 서울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를 구현하고, 그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일이다. 서울대는 그동안 한국 지식사회를 상징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지식사회를

「네트워크 구축」을 새 전기로

대변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 서울대생은 비록 지적능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더불어 사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작년 서울대 신입생 77%가 대도시와 광역시 출신이며, 전문직·관리직의 자녀가 절반이상이었다고 한다. 서울대생의 계층적 편향성은 결국 사고의 폐쇄성을 낳고, 이것이 다양한 경험과 사

고의 유연성을 필수로 하는 창의성 계발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입 鄭총장의 지역할당제 도입 등 입시제도 개혁 시도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동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서울대 출신들은 이따금 「공동체라는 물 안에서 함께 해엄을 치지 않고, 물 바깥에서 해설만 하려 든다」는 비아냥거림을 듣기도 한다. 이른바 「서울대 위기론」도 따지고 보면 학벌에만 안주, 앞장서 위험을 감당하지 않고, 기득권층의 오만에 쉽게 빠지는 일부 구성원들의 안이한 태도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다가오는 2003년 새해에는 새로 짜여지기 시작한 「서울대인의 네트워크」가 동창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서울대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탈바꿈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

(衡)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炯斗, 崔靑林, 李炯均, 南仲九, 金鎮銅, 金好俊, 宋鎮赫, 丘月煥, 洪性萬, 朴明珍, 李成俊, 安炳燦, 李元馥, 安國正, 李慶衡, 金鍾勳,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嚴基永, 朴時龍, 姜天錫, 朴聖姬 편집장 安興燮 편집기자 朴宰亨, 表智媛, 鄭珉鎬 광고부장 金千鶴

동문칼럼

책임 통감하고 정신부터 가다듬어야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로 금년에 많은 일을 하신 동창회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그 명제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서울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에 앞서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위상이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확실히 조명해보고 나서 옳은 방안을 설정해야 될 줄로 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21세기 두뇌경쟁시대를 맞아 우수인력 확보에 혈안이 되어 수재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그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서울대 무용론과 폐지론」이 운운되고 있다니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설마 우리 나라에는 우수인력이 필요 없어서 나온 말이 아닐 것이고 보면, 현재의 서울대로서는 우수인력을 배출하기엔 뭔가 잘못돼 있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예로 현재 우리 나라의 수출은 세계 11위, 국가등급은 24위, 측구는 4강인데 서울대의 세계등급은 40위도 안되고 또한 국내 각종 입사시험에서도 서울대 출신보다 타 대학출신이 종합평가에서 낫다고 하니 우리 서울대의 명예와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서울대 간판이 이제는 출세의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가 된 것 같다.

아직까지 우리 서울대인 중에서 기발하고 출중한 창작물 또는 신제품의 발명 등으로 노벨상 후보가 됐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고, 날이 갈수록 서울대의 위상만 자꾸 떨어져 가고 있으니 그 이유를 한번 냉정히 생각해볼 일이 아닌가 싶다. 후배들에게 실례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금전만능 한탕주의 풍토와 부정과 비리로 뒤범벅이 된 혼탁한 판국에 서울대인만이 독아청청 하라는 법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부득이 현실에 영합해 권력과 금력자에 줄을

黃 正 植
(57년 文理大卒)
(주)레인건설
대표이사



대거나 취직자리를 찾아 발버둥치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라고 한다면, 보다 창의적인 과제나 신소재 개발에 도전해 새로운 창작과 발명을 하려는 의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서울대라는 울타리 안에 안주하며 21세기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한 결과 세계적 경쟁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학생은 그렇다하더라도 졸업해서 출세했다는 우리 서울대인들은 비리와 위선으로 얼룩진 이 혼탁한 사회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더욱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고 있는 부패정권의 중심에 서있는 자들이 우리 서울대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이기에 국민을 경시하고 통치자 또는 권력자를 주인공으로 섬기면서 온갖 부정과 비리를 감싸고 합리화하려고 날뛰는 파렴치한 정치인들, 아직도 전근대적 권위주의와 아부근성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숙물들. 이런 것이 우리 서울대인의 숨김없는 자화상이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망치는 이런 비열한 인간들을 양성해내는 서울대라면 마땅히 무용지물이며 폐지돼야 한다고 말한들 무슨 할말이 있겠느냐.

한때 서울대는 우리 나라 모든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며 우리 국민에게는 자랑과 미래의 꿈이었는데, 그 기대를 저버린 우리에게서 실망한 나머지 배신감마저 가지게 됐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

다. 일신의 영리영달을 위해 국민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는 석고대죄의 자세로 깊이 뉘우쳐야 할 것이고, 자신만은 결백하다고 할 사람이 있겠지만 부정과 비리가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방치돼왔고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어찌 공범자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의 잘못된 정신상태부터 과감히 고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줄 안다. 나와 더불어 남을 배려하고 나아가서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자세로 새로운 소재개발과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할 때 국민은 다시 우리 서울대인에게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며 서울대 폐지론이 서울대 발전론으로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

바라건대 우리 젊은 서울대 엘리트들은 보다 넓은 도량과 안목 그리고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무기력하고 침체된 연구풍토를 일신하고 당면한 통일문제와 더불어 21세기의 새로운 과제에 과감하게 도전해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들 후배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은 서울대동창회 회원들의 몫이다.

서울대 재학생과 지도교수 그리고 서울대 졸업생을 망라한 서울대인 전체가 하나같이 서울대와 나라를 사랑하는 참된 마음으로 노력하면 반드시 노벨상 수상자도 배출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 서울대의 명성을 되찾고 명실공히 세계일류대학의 반열에 우뚝 섭과 동시에 나라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다.

제5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공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 국가와 사회에 공헌하여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를 드높인 동문(비동문) 또는 단체를 찾습니다.

아래 내용으로 제5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하시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 상 부 문	
참여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여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협력상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동문 개인 또는 단체, 비동문 개인 또는 단체
영광상	사회 공익과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훌륭한 업적을 쌓아 모교와 동창회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동문 개인 또는 단체

1. 시상 부문 : 동창회 지표인 「참여」「협력」「영광」에 따라 세 부문으로 구분
2. 구비 서류 : 추천서, 피추천자의 공적사항
3. 추천서 접수 :
 - 1) 접수마감 : 2003년 1월 31일
 - 2)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 702-2233·팩스 : 703-0755)
4. 시상 시기 : 서울대총동창회 정기총회 (2003년 3월 21일)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林 光 洙 · 관악대상 운영위원장 孫 一 根

건강을 지킵시다

요로결석, 참을 수 없는 고통

신장이나 요관의 결석은 흔히 혈뇨와 疝痛(Colic Pain)을 초래하여, 이 산통은 그 정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해 환자는 대굴대굴 구를 정도로 아파한다. 통증은 급작스런 요관폐색 때문에 발생하며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하는 등 간헐적으로 나타나 환자를 더욱 곤혹스럽게 한다. 요관결석의 경우 남자는 음낭이나 고환, 여자의 경우 음부로의 방사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 방광결석의 경우 배뇨중절, 배뇨곤란 등을, 요도결석의 경우 가늘어진 요선이나 배뇨불통 등을 호소한다. 이외에 오심, 구토, 복부팽만 등 소화기 증상이 동반돼 소화기 질환으로 오진되기도 한다.

요로결석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요석성분이 과포화돼 결정체를 이룬다는 핵화설과 비결정물질인 기질에 요석성분이 침착한다는 기질설, 그리고 결석화 억제물질 결핍설 등 세 가지가 상호 보완작용에 의해 요석이 발생한다고 하며, 요로결석 발생기전을 명백하게 규명하는 사람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될 것이다. 요로결석은 소변의 pH, 요로감염 유무 등의 조건에 따라 구성 성분이 달라지는데 요검사, 요배양검사, 방사선검사 등으로 진단한다.

결석의 치료는 결석의 크기, 위치, 감염유무, 요폐유무, 증상의 경중, 대사활성의 여부 등을 고려해 시기와 방법을 결정한다. 요로결석은 요로감염과



南宮 堅(73년 醫大卒)
남궁비뇨기과의원 원장

요류정체를 일으켜 신기능을 저하시키고 전신감염을 초래하므로 어느 경우이든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약물치료를 동반한 자연배출, 내시경을 이용하는 방법, 체외충격파쇄석, 그리고 관혈적제석 등이 있으며 결석의 특성에 따라 치료법을 결정한다. 요로결석의 경우 환자의 50% 이상에서 재발되므로 결석제거 후 재발방지를 위해 특이한 식이요법과 약물요법이 필요하다.

요로결석 환자에게 맥주를 많이 마시라고 권하는데 자연배출이 가능한 결석의 배출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맥주에 요산이 많아 요산석이 생길 가능성이 커 맥주는 결석환자에게 나쁘다. 짠 음식은 요로결석 발생을 촉진하므로 짠 음식 역시 결석 환자에게 나쁘다.

주로 야간이나 새벽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해 환자, 가족, 의사 모두를 곤혹스럽게 하는 요로결석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며 제거 후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락처 : 043-271-3051)

추억의窓

내장출혈로 입원...수강 일수 못 채워
가정교사·직장생활하며 늦깎이 졸업

李道卿(63년 農大卒)(재)부평문화재단 이사장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평범한 학교 생활이었으나 3학년이 되면서 두 차례 수술을 하는 어려움과 생에 대한 번민과 방황까지 겹쳐 두 달이나 결석을 했다. 마음을 추스르고 보니 중간시험이 시작됐다. 친구들의 노트를 빌려가며 어렵게 시험을 치러 가고 싶었던 공대 대신 농대에 입학하게 됐다.

대학 1학년 2학기 중에 내장 출혈로 대학병원에 입원하는 어려움으로 수강 일수가 미달돼 2개의 교양 과목시험을 못 치러 4학년 때 재수강하기도 했다. 선배님들이 쓰시던 당시 축산과 吳鳳國교수님 관사 한쪽 방에서 자취생활을 하며 2학년을 마치고 군에 입대해 18개월만에 제대했다.

바로 복학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4·19가 발생해 라디오 방송에서 피가 부족하다는 뉴스를 듣고 서울역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헌혈하는 것으로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위를 해야만 했다.

1960년도 국세조사 결과를 처리하는 통계국의 임시직에 공채로 들어가게 됐고, 밤에는 성균관대 야간 경제학과에 편입학해 공부를 시작했다. 그 당시 처음 도입된 IBM 기종의 매뉴얼 번역과 프로그래머 생활을 하며 컴퓨터를 처음 경험한 1세대가 됐다. 그때 서울상대를 휴학하고 같이 근무했던 具石謨(現세종대 교수)동문은 제 일 좋아하던 친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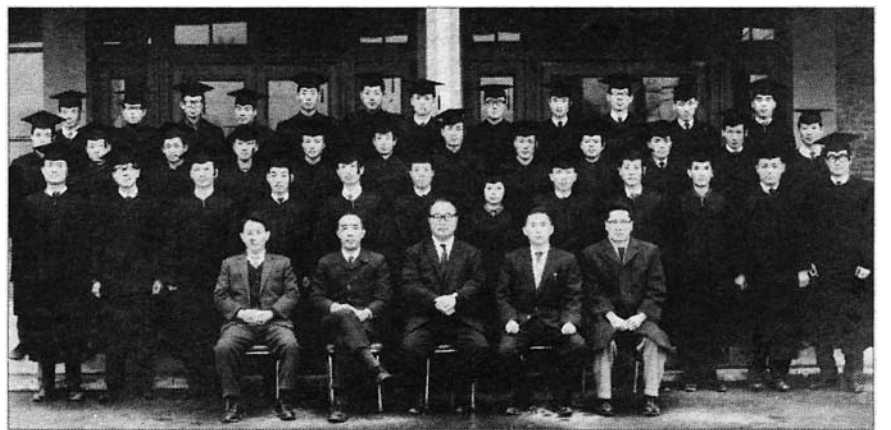
통계국 업무가 폭증하자 3교대 근무를 실시하면서 오후 근무를 지원했다. 네 차례 연속으로 휴학을 한 끝에 다시 서울대 학위를 받고 싶은 생각을 했고 농

대에 3학년으로 재입학해 네 번째 입학금을 내게 됐다.

당시의 경부선은 한두 시간 연착은 흔한 일이어서 오전에는 수원의 학교로, 오후에는 서울 근무처로, 밤에는 가정교사로 뛰어다니려니 네다섯 시간 자기도 힘들었다. 오후 실습시간에 참석을 못해 李台現교수님의 과수과목은 재수강을 했고, 表絃九교수님 세미나 시험에는 열차 연착으로 시험이 끝날 때 도착한 일도 있었다. 다행히 교수님의 배려로 교수님 연구실에서 입학동기인 李美淳(現덕성여대 교수)조교의 감독 하에 원서 번역으로 학점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학교에 의료보험제도가 있어서 마지막 학기를 마치고 대학병원에 입원해 흉부수술을 받았다. 입원 중에 문리대 교정에서 찍는 8월에 가진 졸업식에서 학위증서를 받던 기억은 지금도 고통스럽게 느껴진다. 이렇게 해서 나는 입학 동기생 중 맨 마지막 졸업생이 됐다. 졸업 전에 첫 번째 공채에 농업직 4급 을류(현재 7급에 해당)에 합격해 농림부 농산국에 취직하는 행운까지는 남 모르는 고충도 많았다.

파란만장한 학창생활 끝에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그래도 이만큼의 인생이 되도록 영향을 주신 柳達永교수님께 항상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보람 있게 마무리하고 싶을 뿐이다.



졸업기념식에서(맨 뒷줄 우로부터 세 번째 필자).



관악언론인회 간사 모임

모교 鄭雲燦총장 초청 환담 나눠

모교 鄭雲燦총장 초청 「관악 언론인회」 주비·간사위원 및 간사모임이 지난 11월 8일 한국언론재단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재단법인 관악회 洪性大상임이사를 비롯한 동창회 관계자와 관악회 南仲九주비위원장, 각 언론사·학계 간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鄭雲燦총장은 「항상 모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

지 않는 언론계 동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간략하게 초청인사를 밝혔다.

南仲九주비위원장은 「모교와 동창회의 만남은 쉽지 않은데 자리를 마련해주신 鄭총장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어렵게 마련된 자리가 이므로 유익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답사를 했다.

林光洙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귀한 시간을 내준 鄭총장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면서 「관악언회 동문들은 언론의 사회적 소명과 언론문화 창달에 힘써 주기 바라며, 모교의 홍보와 지원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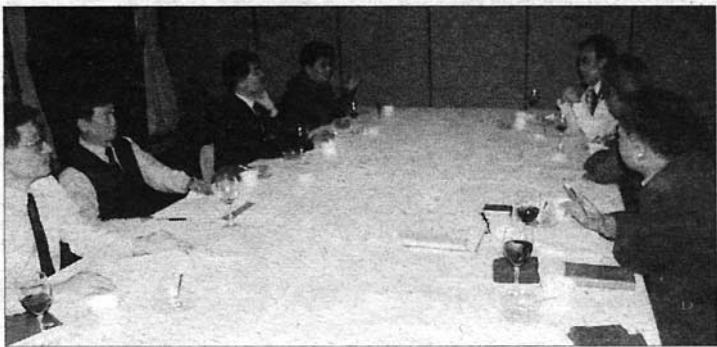
1시간 남짓 동안 진행된 총장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鄭총장과 柳根培기획실장 등 모교측은 강남순환고속도로 관악IC 반대, BK21 문제, 대학입시 지역할당제 등 모교의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총동창회와 관악회는 모교 홍보 및 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한편 그동안 공식이던 YTN 간사에 정치부 李東憲(86년 法大卒)차장이 선임됐다.

기금관리운영위원회

기금 증대와 수익성 확보 논의



본회 기금관리운영위원회가 지난 11월 27일 한국언론재단 석류실에서 재단법인 관악회 洪性大상임이사, 李世震사무총장, 文昌星(조흥은행 종금본부장)·金善九(신한은행 부장)·張楠鎬

(대한투신 리서치센터장)·黃承淵(동양증권 총무팀장)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洪性大상임이사는 「이전에는 장학금을 지급하고도 기금이 남았던 반면 현재는 기금이 줄어

들고 있어 안정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확대를 위한 좋은 의견을 많이 내달라」고 회의의 의미를 설명했다.

李世震사무총장의 예치금 현황과 기금운용 설명에 이어 기금운용의 개선 및 보완 방향, 안정적인 수익성 제고를 위한 포트폴리오 대책, 기금활용 수익사업 및 상품개발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연·고대 동창회 장학금과의 비교, 이전 장학금 수혜자와 재학생과의 자매결연 등 장학금 확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으며, 특히 기금의 감소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향후 과제로 대두됐다. (鎬)

郭東憲변호사

특지장학금 5천만원 약정

지난 11월 20일 郭東憲(65년 法大卒)변호사(사진)가 본회에 장학기금으로 5천만원을 출연키로 약정하고 1천만원을 출연했다.

郭동문은 2006년까지 매년 1천만원을 출연하여 「郭東憲특지장학회」를 설립,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재학생



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지부

송년 「서울대의 밤」 행사 개최



부산지부동창회(회장 文貞奎)는 지난 11월 25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安相英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해 동문 2백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송년 「서울대의 밤」 행사를 열었다.

1부 행사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文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부산 지역 동문들은 지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희망」이라고 말하며 「앞으로 동창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이 지역의 희망으로서 사회와 국가 발전에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安相英(63년 工大卒)시장은 축사에서 「국가의 중요한 재산 가운데 하나가 인재인데 이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그동안 부족했다」며 「앞으로 부산시가 이를 위해 인재양성을 위한 1천억 펀드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 프로젝트에 대한 동문

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禹遠亨(56년 醫大卒·부산부인과 원장)고문과 朴在丰(58년 法大卒·변호사)부회장이 送舊迎新的 뜻을 기리며 건배사를 했다.

이후 2부 순서인 「서울대의 밤」 연주회에서 金賢心(89년 音大卒)동문이 김순애 곡 「그대 있음에」를 독창으로 시작해 金吉洙(85년 音大卒)동문이 바리톤 독창을 불러 참석자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갈채를 받았다. 이날 白在鎭(84년 音大卒)동문이 바이올린 독주를 선보이며 피날레를 장식했다.

대전·충남지부

신임 기관장 환영만찬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熙弼)는 지난 11월 18일 대전시내 지중해 식당에서 동창회 임원 30여 명과 대전지역에 새로 부임한 11명의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기관장 환영만찬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신임 기관장은 崔秉鶴(65년 法大卒)대전지법 원장, 洪日杓(67년 法大卒) 특허법원장, 중부대 李浩一(68년 工大卒)총장, 黃善泰(70년 法大卒)대전지검장, 金範鎰(73년 商大卒)산림청장, 대전고검 洪景植(74년 法大卒)차장검사, 吳鍾南(75년 法大卒)통계청장, 權五奎(75년 商大卒)조달청장, 대전지검 林貞洙(77년 法大卒)차장검사, 金重謙(77년 人文大卒)충남지방경찰청장, 대전고법 李晟輔(79년 法大卒)수석부장판사이다. (亨)

미술작품



「산길」, 유채, 80.3×65.1cm, 2002.

李 啓 安 作

<작가약력>

- ▲64년 모교 미대 회화와 졸업
- ▲77년 대학원 졸업
- ▲81~95년 개인전 3회
- ▲81년 아시아 현대미술전
- ▲89년 그리고 그리느니
- ▲95년 한국 100개의 자화상
- ▲73~01년 양가주망전
- ▲01년 양가주망 29인의 개인전
- ▲현재 단국대 강사

—바로 잡습니다—

지난호(제296호) 7면에 게재된 홈커밍데이 협찬 동문 명단 중 「朴重鎭 75년 商大卒」을 「白純之 69년 齒大卒」로 정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호(제296호) 5면에 게재된 동창회보 PDF 제작과 관련하여 1982년에 발행된 지령 54호와 57호를 보내주신 金昌協(63년 醫大卒·소아과의원장)동문에게 감사드립니다.

2002년 동창회 활동을 뒤돌아보며

壬午年을 마감하며 희망찬 癸未年 새해를 설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의 동창회 활동을 정리·결산해본다.

우수지부 및 유공동문 표창

본회는 지난 1월 19일 정오 신라호텔 영빈관 에머랄드룸에서 각계 동문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2001년 한해동안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크게 공헌한 지부 및 기·과 동창회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지방지부 부문에 전북지부(회장 柳仁相), 해외지부 부문에 중국 북경지부(회장 金東賢)·상해지부(회장 鄭聖在), 직장지부 부문에 한국도로공사 지부(회장 金英雄)가 각각 선정됐으며, 기·과 동창회로는 화학과동창회(회장 金秀子)와 齒佛會(회장 李在一)가 표창을 받았다.

또 단과대학(원)동창회 및 지방지부 회장을 역임한 池憲澤(치대)·陸寶根(자연대)·金秀哲(보대원)·朴寬用(국가정책과정)·金閔鍾(관악무악인회)·金英昊(제주지부)·徐德圭(대구·경북지부)·權哲珍(진주지부)·李景宰(마산지부)동문과 동창회보 상임논설위원 겸 동창회 운영위원으로 봉직해온 金哲洙·朴世熙·崔靑林·李炯均·安國正·金仁圭·朴聖姬동문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1·2학기 장학금 수여식

본회(재단법인 관악회)는 지난 2월 19일과 8월 21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2학년도 1·2학기 장학금 및 특지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趙星範(경영학과 3년)군을 비롯한 3백1명에게 5억3천3백38만5천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제19대 林光洙회장 선출 제4회 「관악대상」 수상

본회는 지난 3월 15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2002년 신입회원 환영회 겸 제3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4회 「서울대총동창회 冠岳大賞」 시상에서 참여 부문에 재미동창회 吳仁錫(62년 法大卒·모교와 후진을 위한 100만불 기금위원회 위원장)명예회장, 협력 부문에 CJ 孫京植(61년 法大卒·모교 발전후원회 회장)회장, 영광 부문에 모교 수의대 黃禹錫(77년 獸醫大卒)교수가 각각 수상했다.

이어 안전 심의를 통해 제19대 신입 회장에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토건 회장)수석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또한 方孝宣감사의 후임으로 朱成民(73년 法大卒·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동문을 새로 선임하고 朴英俊감사를 재선임했다.

임원 상견례 및 상임 이사회

본회는 지난 5월 3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9대 회장단, 임원 상견례 및 상임 이사회를 개최했다.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동창회 위상을 정립하고 발전방향을 구축해 가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의 역할과 성원이 크게 기대된다』고 말하고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리드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어떠한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실천력을 모두 갖춘 21세기 서울대인상을 다함께 구현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제19대 동창회 부회장 54명·관악회 이사 14명을 대표해 孫一根(51년 法大入·한국일보 상임고문)상임부회장, 洪性大(63년 文理大卒·상산학원 이사장)상임이사에겐 선임장을 수여했다.

제4회 동창회·모교 친선골프

본회는 지난 5월 26일 인천그랜드CC에서 동창회 임원, 모교 교직원 등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동창회·모교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스승의 날 기념 謝恩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날 대회는 오전 10시 40분부터 20개조로 나눠 시합을 가졌다.

오후 5시에 시작된 시상식에서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록 1년에 한번이지만 오늘과 같은 모임을 통해 모교 교직원과 동창회 임원이 상호 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고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모교의 명예를 위해서,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 다함께 뜻과 힘을 모아 세계수준의 종합연구 대학으로서 서울대의 정체성과 그 위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모교의 발전 방향을 구축해 가는데 교직원은 물론 동창회 임원 여러분의 역할과 성원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관악언론인회 발기인 모임

본회는 지난 7월 15일 조선호텔 호경전 자스민룸에서 동창회보 논설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관악언론인회(가칭)」 창립 발기인모임을 가졌다.

林光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才多士한 동문 언론인의 자율적·자발적 결속을 통해 우리나라 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동창회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관악언론인회」 창립을 추진해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명실상부한 동문언론인의 친목과 정보교류



지난 5월 3일 개최된 임원 상견례.



인천그랜드CC에서 가진 모교 사은 골프대회.



지난 9월 16일 열린 모교 鄭雲燦총장 취임 축하연에서.

나아가 모교발전을 지원하는 단체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 관악회 창립 준비위원으로 孫一根상임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을 비롯해 李炯均(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南仲九(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장)·金鎮銅(서울경제신문 주필)·安炳燦(경원대 교수)·安國正(SBS 편성본부장)·金仁圭(KBS 뉴미디어본부장)·徐玉植(前연합뉴스 기사심의실 고문)·朴聖姬(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논설위원 등 10명을 위촉했다.

또 지난 7월 24일 한국언론재단 석류실에서 관악언론인회 창립 준비위원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준비위원장에 南仲九(동아일보 21세기 평화연구소장)논설위원을 선출했으며, 간사위원으로 曹炳喆(77년 社會大卒·세계일보 심의위원)동문, 李昌玟(86년 農大卒·국민대 교수)동문을 선임했다.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심사위원은 회장, 부회장, 간사장,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회장이 위촉키로 했다. 「서울대 언론인 대상」 시상식은 매

년 2월 총회에서 열고, 상패와 부상을 수여키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 8월 31일 한국언론재단 국화실에서 열린 관악언론인회 창립 준비위원 제2차 회의에서 KBS 金仁圭(73년 文理大卒)뉴미디어본부장과 MBC 權在弘(81년 自然大卒)경제부장을 각각 간사장과 방송부문 간사위원에 선임했으며, 당초 10월로 예정했던 관악언론인회 창립총회를 내년 2월 12일로 늦추기로 잠정 합의했다.

「서울대 인명록」 및 CD 발간

본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온 인명록 발간사업이 지난 7월 23일 초판 1쇄를 찍음으로써 결실의 첫 단추를 열었다.

글로벌시대의 지식기반사회에 걸맞게 모교와 동창회의 역사를 담은 CD-ROM TITLE과 직업·직장별 명부를 함께 제작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기록과 자료가 될 것이다.

본회는 인명록(색인부 포함)과 직업·직장별 명부, CD-ROM TITLE이 담긴 한 세트를 한정판으로 예약을 받아 1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 3쇄를 발간할 예정이다.

학부는 물론 대학원·단기과정 출신 등 중복자를 포함해 28만5천명이 수록된 인명록을 발간함으로써 동문 선�후배간의 교류 활성화는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가 증진되고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모교 鄭雲燦총장 취임축하연

본회는 지난 9월 16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각계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교 鄭雲燦총장 취임 축하연을 개최했다.

鄭雲燦총장은 『최근 모교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서울대인의 문제점으로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려는 안전제일주의 사고, 리더십의 부재, 소극적인 대인관계 등을 꼬집었다』며 『오늘날 학벌에만 의지해 현실에 안주하려는 서울대인의 이러한 태도를 고치고, 사회로부터 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에 봉사하려는 마음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학생들에게 知行合一의 자세를 강조, 나만의 세계에 갇힌 이기적 졸장부가 아닌 더불어 사는 지성인으로 교육시켜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학교 전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 林光洙회장, 李吉女부회장, 白樂院고문이 모교 鄭雲燦총장, 鄭明熙부총장, 白忠鉉대학원장에게 각각 본회에서 준비한 행운의 열쇠를 전달했으며, 이날 특별히 참석한 모교 재학생 金賢昇(국악과 1년)양이 꽃다발을 증정했다.

제24회 홈커밍데이 행사

본회는 지난 10월 20일 2천5백여 명의 동문과 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계속된 雨天豫報와 당일 오전 내내 내리는 비로 인해 관악산을 넘어 농생대 수목원에 안착하는 산행은 취소됐으나 2부 친목과 단합의 시간을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문화관 입구에서 접수를 마친 동문 가족들은 성악가 曹祥鉉동문과 자녀로 구성된 조TRIO의 협연 CD를 기념품으로 받고 준비된 점심식사를 들었다.

이어 林光洙회장이 모교 농생대 李景俊(71년 農大卒)수목원장에게 나무이름패 제작지원비로 2백만원을 전달했다.

孫一根상임부회장의 행사 경과보고에 이어 이날 특별히 「동문과 모교 鄭雲燦총장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Noblesse
Oblige

꽃동네 환자 돌보는 蔣舜明외과의사

의료봉사로 올해 「서울시민대상」 수상

“이곳에서는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아프리카 하면 풍요롭고 강한 이미지 보다는 가난한 대륙, 기아에 허덕이며 절실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 내전으로 황폐화된 모습이 먼저 떠오른다. 특히 아프리카에서의 의료활동 역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턱없이 부족한 의료용품과 낙후된 시설, 그나마 남아 있거나 외국에서 긴급수혈한 의사들조차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애먹기가 일쑤다.

지난 10월 20일 제14회 서울시민대상 대상을 수상한 蔣舜明(68년 醫大卒·인국 자애병원 외과의사)동문 역시 75년부터 몇 년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의료활동을 펼친 바 있어 그곳에서의 힘들었던 경험을 기대하고 물어봤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과는 빗나갔다.

『의료활동을 하러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리라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울타리가 전혀 없는 외일드한 평지에서 키 큰 기린 대여섯 마리가 경중경중 뛰어다니는데, 정말 환상적이더군요. 평생 보기 힘든 장면인데 제가 그때 재수가 좋았죠』

그는 그곳을 세상의 천국, 아니 낙원이라고 말한다. 『참 뭐라 할까...행복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그렇게 또 가고 싶고, 향수가 대단했어요. 힘든 일도 물론 있었겠죠. 하지만 살면서 그곳에 적응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니까 좋은 기억이 더 많아요』

어릴 적부터 의사가 꿈이었던 蔣동문. 중학교 시절, 슈바이처 박사의 기사를 스크랩하며 그의 삶과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동경했다. 누가 권유를 했다거나, 특별한 경험이 있어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레 자신의 삶을 지배해왔다. 그는 또 일반외과 및 정형외과 전문의로 통한다. 그래서 동기



이유도 없었다고.

오랜 세월 하나의 꿈으로만 생각했던 아프리카 방문은 우연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한 의대 동기가 의협신문에 아프리카에서 의료활동을 할 의사를 모집한다는 기사내용을 蔣동문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미 결혼도 하고 어린 딸 하나를 둔 가장이었지만, 그는 주저없이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곳의 하늘은 한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높고 맑아요. 또 사방이 땅이라 바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어 수평선을 바라다보면 마음이 확 뚫려버리죠. 우간다는 26개의 부족으로 구성돼 있는데, 저마다의 말과 풍습,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로 진료하러 나갈 때면 간호사가 몇 개의 부족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통역원으로 서 저를 수행하곤 했어요.』

물론 제가 갔을 당시의 우간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국민 생활이 엉망이었습니니다. 이디 아민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곳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수출품을 군장비로 바꾸는 바람에 조금 한 주먹을 얻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광경을 보곤 했어요』

캄팔라에서 약 4백km 떨어진 리라병원 역시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자신의 기술과 배운 지식을 다 발휘할 수 없다는

들보다 2년 많은 13년을 공부에 투신했다. 이쪽 분야에 약간의 취미가 있었을 뿐, 두 개를 해야겠다는 특별한

현실이 힘들었을 뿐, 최소한의 치료와 수술은 할 수 있었다고. 『양쪽 배에 작은 호박 만한 혹을 하나씩 달고 다녀야 하는 탈장이 제일 많았고, 대부분 말라리아에 걸려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많이 처참했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제 할 일을 하며 그곳에 동화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돌아온 후, 蔣동문은 부인 李 令允여사를 통해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사회복지관)와 인연을 맺게 된다. 처음엔 주말마다 3천여 명의 행려병자, 장애인 등이 생활하고 있는 꽃동네내 인국 자애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지냈다. 『시간이 지나니까 주말 봉사로는 환자를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요. 손을 한번 댈 환자는 끝까지 옆에서 치료해줘야 하는 것이 의사입니다. 환자가 편해야 내가 편하고, 가정에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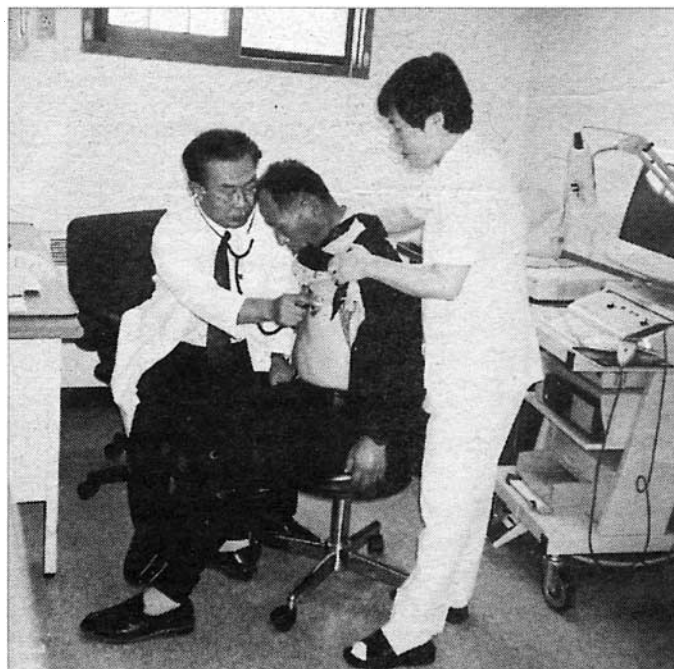
안이 깃들기 때문이죠. 94년부터는 서울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이 곳에 정식 외과의사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은 일 주일에 세 번 내려가고 있고요』

그곳에는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환자가 대부분이라 의사로서 회의가 들 때도 있었지만, 蔣동문을 위해 기도 드린다는 환자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는 어느새 남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으며 『바깥 세상에서는 결과가 나쁘

면 의사를 원망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말한다.

자녀(3녀1남)들이 대학갈 무렵 꽃동네로 가게 된 蔣동문은 당시 이들의 등록금을 감당하기엔 봉급이 너무 적었다. 다행히 장녀 蔣眞姬(96년 農生大卒)동문과 막내아들 蔣眞範(모교 공대 기계공학과 재학중)군은 등록금이 저렴한 모교를 들어갔고, 삼녀 蔣眞聖양도 현재 을지의대를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다. 또 차녀 蔣眞令양은 현재 모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 『각자 알아서 근검절약하며 제 길을 가주니까 고마울 따름』이라고 웃음 짓는다.

잘 나가는(?) 의사와 그를 비교하는 것에 대해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의사라고 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게 봉사하며 살라는 법은 없어요. 공부하는데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투자했으면, 열심히 배운 거 가지고 가정도 꾸리고, 생활도 해결해야지요. 나이가 들어 여유가 조금 생겼을 때, 땅만 쳐다보던 자신의 고개를 한번 들고 세상을 보면 다른 생각도 들고 그럴 겁니다. 그때 가서 남은 여생 몇 년 동안 봉사하면 되지, 의사도 사람인데...』라고. (表)



인국 자애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蔣동문.

지부 순례

미국 휴스턴 지부

음악회로 장학기금 마련, 후학 지원

글 : 金永昌(72년 工大卒)회장

미국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이며 약 4만여 명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텍사스주 남동부의 휴스턴(Houston). 인구가 약 1백78만7천명(1998년)인 휴스턴은 세계 석유산업의 중심지이며, 합성고무를 비롯한 화학공업과 멕시코만에 풍부한 석유, 천연가스, 황 등의 자원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휴스턴이라는 명칭은 멕시코의 영토이던 1836년 당시 발생한 텍사스 독립전쟁의 영웅 사무엘 휴스턴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다. 20세기 초 이래 석유화학공업의 대확장과 운하의 완성으로 변

두리에 지나지 않던 휴스턴은 급격한 성장을 하여 1900~1950년 사이에 인구가 14배로 격증했다.

휴스턴은 M.D. 앤더슨병원 등 많은 병원과 의과대학이 있어 텍사스주 의료의 중심지이며, 美항공우주국(NASA)의 우주비행관제센터가 소재하고 있어 1967년 7월 인류 최초의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 11호를 비롯한 우주선의 관제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 현재 美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 前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며 지금도 거주하고 있어 정치적으로도 미국 남서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휴스턴 지부에 거주하는 동문은 약 1백80여 명으로,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어느 지부동창회보다 단란하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필자가 현재 회

장을 맡고 있으며, 동문들의 친목 도모를 위해 조그마한 힘이나마 보태려 노력하고 있다. 휴스턴이 세계 석유산업의 중심도시인 탓에 많은 동문들이 공대 출신으로 엔지니어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李振洙(74년 醫大卒)동문은 휴스턴의 M.D. 앤더슨병원 암센터에서 흉부 종양내과 교수를 지낸 명실공히 폐암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다. 미국 의료발전에 일익을 담당한 李동문은 현재 한국 국립암센터 병원장으로서, 이제는 국내 의료발전에 역량을 쏟아내고 있다.

휴스턴 지부는 동문 골프대회, 만찬 등 친목 도모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후학들에 대한 관심도 이어가고 있다.

매년 봄,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해 우의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은 물론 동문간에 유용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는 장을 마련한다. 늦가을인 11월경에는 동문 주소록 발간과 기타 용도에 필요한 기금을 위해 저녁 만찬을 열고 있으며, 12월에는 송년 만찬을 겸한 지부 전체모임을 열고 저물어 가는 한 해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모임에서 차기 회장단과 임원진이 소개되고 현 임원진은 연말 결산보고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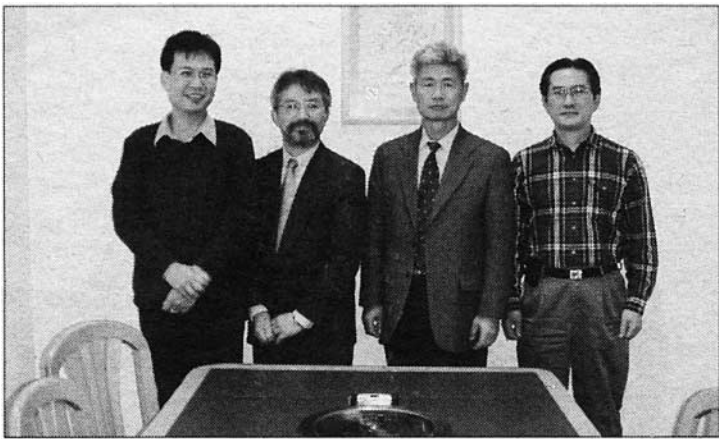
한국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후학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는 것은 휴스턴 지부의 독특한 사업이자 자랑거리이다. 매

년 봄, 학업·예능·지도력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함을 보인 다섯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가을에는 장학기금마련 음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서양음악과 국악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인을 초청해 훌륭한 연주를 감상하며, 장학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족동반으로 연주회장을 찾는 또 하나의 동문모임이 되고 있다.

장학사업의 확대, 행사의 다양화, 유기적이고 신속한 연락망 구축 등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다. 가족적인 분위기와 생동감, 활력이 넘치는 휴스턴 지부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고국과의 연계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金永昌 회장



2002년 정기모임 (좌로부터 李在庸총무·朴鎮燮부회장·필자·許眞範재무).

기과 순례

법대25동기회

해외여행·등산·바둑 소모임 활동 「왕성」

글 : 金泰九(71년 法大卒)총무



尹錫正 회장

법대25동기회는 1967년에 입학한 25회 졸업동기간의 모임이며, 1975년 부터 꾸준히 모임을 지속해 오다 80년대 중반부터는 회장 선출, 정기총회 등의 골격을 완전히 갖추었다. 전임 회장을 맡은 林昇煥(두립상사 회장)·金洪憲(법무법인 동일 변호사) 동문 등이 동기회 기반을 다지는데 힘을 쏟았으며, 현재는 尹錫正(법무법인 하나 대표변호사)동문이 17대 회장으로서 동기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1백60여 명의 법대25동기회 회원들은 정·재계, 공직, 학계 등 각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으로 우리 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과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姜在涉(국회의원)·金振杓(국무조정실장)·朴元出(조폐공사 사장)·李榮蘭(숙명여대 교수·무역위원회 위원장)동문은 정계와 정부기관 등에서 각각 공복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白德烈(법무법인 광장 변리사)·鄭在昊(LG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玄在賢(동양그룹 회장)동문은 재계에서 경제

성장을 위해 힘을 쏟고 있으며, 법조계의 金滉植(대법원 기획조정실장)·宋光洙(대구고검장)·李英愛(서울고법 부장판사)·趙圭政(광주지검장)·蔡秀哲(창원지검장)동문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文東厚동문은 한·일월드컵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법대25동기회의 이름을 빛냈다.

분기별로 정기총회를 열고 있으며 경조사, 가족동반 해외여행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10여 명의 동문들도 꼭 참여할 정도로 동문들의 발길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자발적인 동호인의 소모임들도 더욱 활성화돼 돈독한 우의를 다지고 있다.

지난 2001년 10월 열린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에는 동문과 가족 등 2백여 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모교 林元澤·黃迪仁·金哲洙명예교수 등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진 당시 은사님들도 참석하시어 법대25동기회의 끈끈한 결속력에 대한 칭송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날 은사님들께 사은품을 증정하며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전해드렸고, 후배들이 배움에 정진할 수 있도록 법대 발전기금 1천만원을 출연하기도 했다. 또 올해 3월에는 암투병중인

동문을 방문해 65명이 따뜻한 정성을 모아 1천2백만원의 치료비를 전달하는 훈훈한 인정을 보여줬다.

동기회는 매년 1회 가족동반으로 해외여행을 하며 동기애를 넘어서 가족애를 다지고 있으며, 張俊哲(변호사)동문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백두산 천지 등 우리 민족의 근원을 찾아 성지 순례하고, 만주지역 등 교대사와 관련된 곳을 집중적으로 탐사하며,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기회로 삼고 있다.

법대25동기회 내에는 골프모임, 등산회, 기우회 등 다양한 소모임들이 있다. 鄭在昊동문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골프모임은 지난 1999년부터 매달 20~30명이 참석해 우의를 다지고 있다.

李春三(前조선일보 사회부 차장)동문이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등산회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청계산을 오르며 건강과 친목을 다지고 있다. 기우회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서울 서초동 서초바둑살롱에서 회합을 갖고 기력 향상과 수담을 즐기고 있으며, 姜哲求(트루빌주택건설 회장)동문이 회장으로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캠퍼스를 떠난 지 어느덧 30년의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고, 흐른 세월만큼 변화된 모습으로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으로 바쁘게 지내고 있다. 그러나 管鮑之交를 향하는 법대25동기회의 우정의 만남은 이어질 것이다.



2001년 홈커밍데이 행사.

국가경영전략연구원 金泰俊원장



상산고교 李鉉求교장

“정책공론화 위해 미디어와 공조”

金泰俊(61년 法大卒)동문이 지난 5월 15일 사단법인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사장 姜慶植·61년 法大卒) 임시총회에서 제5대 원장에 선임됐다. 경제침체, 대통령선거 등 전환기를 맞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金원장으로부터 국가정책에 대한 연구원의 역할과 지향해야 할 바를 들어보았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소개를.

『연구원은 국가 주요 정책들에 대한 미래지향적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산·학·관·민의 상호 밀접한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국가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취지로 1991년 설립된 순수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CEO, 언론인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및 회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 연구 및 공론화, 수요정책간담회, 국제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연구대상은 경제에 한정되지 않으며 복지, 교육, 농업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5백여 명의 회원들의 회비와 뜻있는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재정을 마련합니다』

—취임 이후 중점 사업은.

『우선 회원증대 및 재정 확충에 더욱 노력하고, 이를 위해 우리 연구원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사회에 널리 주시길 것입니다. 나아가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제 경쟁시대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리더십을 배양하는 청소년 경제교육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책 공론화를 위한 방안은.

『정책평가와 대안제시가 기본 사업입니다. 특히 매스미디어와의 연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일보와 공동으로 국가적 핵심 과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Whynot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내년 신정부가 들어서면 선거 당시 공약들의 적절성을 검토, 취사선택을 제시하



는 것도 효율적인 국가정책을 위해 연구원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한성대에서 경영학 박사과정을 마치셨는데.

『부끄럽습니다. 1998년에 입학해 4학기를 수료했으나, 현재는 학업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수 없어 쉬고 있습니다. 만학도의 향학열이라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학문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사회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이 계기가 됐습니다』

—후배들에게 한 마디.

『여전히 요구되는 개방화에 대비해야 하고 각 산업분야별로 구조개혁과 성장 및 안정화를 추구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학습하며 고민하는 자세로 우리 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창조적 열정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金동문은 상공부 방위산업국장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고 상공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차관보, 특허청 항고심판소장·청장, 수출보험공사 사장, 법무법인 세종 고문 등을 역임했다. (鎬)

“자립형 사립고 성공모델 만들 터”

최근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된 상산고에 교장으로 내정돼 내년 2월 취임하는 모교 수리과학부 李鉉求(65년 文理大卒)교수를 만나 이 학교에 대한 궁금증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상산고 소개를.

『학교법인 상산학원 洪性大(63년 文理大卒·분회 부회장·관악회 상임이사) 이사장은 저와 같은 수학과 동문인데, 그가 자신의 저서인 「수학의 정석」을 통해 얻어진 재산으로 1981년에 설립한 사립학교입니다. 상산고는 그동안 학문과 덕성을 함께 갖춘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는 데에 가장 많은 정성을 쏟아왔으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자립형 사립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공·사립 구별 없는 획일적인 규제로, 우리 나라에서는 사학다운 사학의 참모습을 찾아볼 수 없게 돼 교육의 질이 낮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공교육의 붕괴, 조기 해외유학의 문제점들이 현안으로 떠올랐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강력한 시대적 요청이 있따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학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 것이죠』

—자립형 사립고란 어떤 학교인지.

『전국 또는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일 반계 고등학교 입학 전형일 이전에 특차로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발 방법은 국·영·수 위주의 지필 고사가 아닌 방법이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에서도 상당부분 자율권이 주어 지는데, 학생들의 소양과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사 정원의 3분의 1이 내에서 교수나 국내외의 석·박사학위 소지자 등 석학들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



습니다』

—학교 운영방침은.

『교장으로서 학교운영에 대해 제가 생각할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방침이겠죠. 이 부분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극대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학진학에도 의미 있게 기여하도록 해야겠지요. 두 번째로 행정적인 부분이라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런 면에서 저는 앞에서 끌거나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작동하도록 돕고 함께 견거나 뛸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저는 목표를 정한 뒤에 질주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생각한 후 출발은 하지 만 천천히 걸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한 마디로 게으른 타입이죠. 서두르지 않고 자립형 사립고의 한 모형을 만들어 상산고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명문학교로 건설하는 데 초석이 되고 싶습니다』

李동문은 미국네티켓대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마쳤으며, 모교 수리과학연구소장·수학과장·자연과학대학장·부총장·총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했다.

(亨)

한국항공우주산업(주) 張聖燮이사

화제의 동문

부동산114 李常英사장

초음속 항공기 T-50 개발 주역

“한국형 전투기 개발하고 싶어”

지난 8월 20일 국산 초음속항공기인 T-50이 우리 나라의 영공을 나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이 항공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그동안 KFP사업을 진행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탄생시킨 것으로 우리 기술진이 설계하고 완성한 초음속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이다.

T-50의 개발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1천2백여 엔지니어들이 참여했다. 초음속항공기는 일반 아음속 항공기와는 달리 모든 부품들이 고도의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어야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제작하는 1천2백여 엔지니어들의 조화와 협조가 없었다면 초음속 항공기의 개발은 결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각기 개성이 강한 엔지니어들의 조화를 완성시켜 T-50의 개발을 이룬 주인공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이사이자 엔지니어인 張聖燮(77년工大卒)동문이다.

張동문은 영국 크랜필드대에서 항공기 설계 석사과정을 마친 후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전신인 삼성항공에 입사해 항공기 연구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금까지 그가 해온 KT-1 기본훈련기 및 통제기 개발 사업, KF-16 전투기 면허생산 등으로 많은 결실들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가장 큰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T-50의 개발은 1997년 10월에 시작해서 5년 간의 노력 끝에 완성한 작품이다.

최신에 제4.5세대 전투기, 즉 F-22·JSF·Rafale·Eurofighter 등의 전투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 설계된 T-50은 F-4 수준의 무장을 할 수 있어 경공격기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음속의 1.5배 이상의 속도를 내며,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과 첨단 디지털 엔진제어 방식을 갖추고 있다. 이로써 세계에서 12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한 나라가 되었다.



는 것이며 록히드 마틴社로부터 세계최고의 설계 기술을 확보한 개가를 이룩했다.

그러나 T-50이 우리 하늘을 나는 날이 쉽게 온 것은 아니다. 개발 사업이 시작부터 IMF를 겪으면서 중단될 위기에 놓였고 기업구조 조정으로 인해 대우중공업·삼성항공·현대우주항공이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통합되면서 張동문이 겪은 마음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개발보다는 국외에서 수입하는 것이 어떠냐면서 개발에 대한 회의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사업을 진행하는 그에게 좌절감을 느끼게도 했다.

張동문은 이처럼 어렵게 개발된 T-50의 기술 습득을 통해 우리 육·해·공군에서 사용할 다목적 수송헬기 및 공격기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앞으로 T-50 초음속 항공기의 우수한 성능을 살려 201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고, 나아가 차세대 전투기인 보이지 않는 전투기와 무인 전투기까지 개발해 자주국방 및 해외수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亨)

경제연구원에서 CEO로 변신

“실패·위험 즐길 수 있어야 성공”

몇 해전만 해도 복덕방이라면 연세 지긋한 분들이 소일거리로 하는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소의 홍보채널이 인쇄매체에서 인터넷으로 바뀌면서 예전의 인식이 깨져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안정된 경제연구원을 나와 인터넷 부동산중개 사업자로 변신, 성공을 일군 李常英(85년 社會大卒)동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

李동문은 전국 6천여 부동산중개소를 사이버공간에 네트워크로 묶어 부동산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114의 대표이사 사장이다. 부동산114는 「소비자가 어떠한 사전 정보도 획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업체」를 가리는 소비자인지도에서 1위(2002년 한국능률협회), 인터넷 부동산중개업 홈페이지(www.r114.co.kr) 접속건수 1위로 정상권을 달리고 있다. 李동문이 부동산114의 경영을 맡은 지 불과 3년만의 일이다.

李동문이 부동산114와 인연을 맺으며 사업가의 길에 들어선 것은 한국개발연구원을 거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재직 중이던 1999년 10월. 李동문은 부동산114의 설립자인 金希鮮상무이사로부터 뜻밖의 제의를 받았다. 『우리 회사의 경영을 맡아서 변화를 일으켜 봐라』는 것이다. 金상무는 李동문보다 한 살 적지만 90년대 초 월간지 「부동산뱅크」 시절 동료로 절친한 사이이다.

그러나 의외로 결정은 신속했다. 평소 「부동산에 대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하고 싶다」는 바람을 지녔던 李동문은 경영자의 길을 과감하게 선택했다.

이해관계가 중심이 되는 인간관계를 비롯해 모든 것이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는데 힘들었다. 게다가 3억원으로 시작한 초기 자본금이 겨우 5천만원밖에 남



지 않는 등 자금사정도 열악했다.

우선 李동문은 「내가 원하던 일이었으니 흔들리지 말자.」 「실패의 리스크를 즐길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初心으로 돌아가 자신감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운도 뒷받침해줬다. 1999년 12월 벤처투자 전문회사인 미래에셋으로부터 1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2000년 초부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절묘하게 막차를 탄 셈이다. 2000년 9월경부터 초고속 데이터통신망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홈페이지 접속건수도 급증했다. 2000년 부동산정보 웹사이트 소비자만족도 1위, 2001·2002년 대한민국 부동산 웹사이트 연속 1위 등 업계 정상권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李동문은 『힘들 때면 안팎으로 쉬운 일 하나 없이 어려웠던 초창기를 떠올리게 된다』며 『당시 나를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어려웠듯이 항상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일』이라며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鎬)

서울大 人的資源의 HUMAN NETWORK化 宣言!!

<<서울大 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 직장별명부(824페이지)
1203여 직업 및 직장 분류에
의한 10만여명 수록



▲ 인명록(2480페이지)
RAW DATA 기준 28만 6천명 수록



▲ 인명색인(544페이지)
28만 6천명 수록



▲ 인명록·직장·직업별
명부 통합CD

서울大學校를 모교로 하는 20여만명의 우리 서울大人을
한자리에 집약·정리한 「서울大人名錄」을
〈CD-ROM TITLE〉, 〈색인부〉, 〈직업·직장별 명부〉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3刷本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 예약, 자료 신규입력과 변경 안내

· 서울大學校總同窓會 2002년 인명록 편집실

주소: 100-273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8-5

TEL: (02)704-8301(直) FAX: (02)704-8564

E-mail: snua2002@korea.com Homepage: http://www.snua.or.kr



㉞ (주) 엔프라테크

“인터넷 속도·접속 현황, 직접 확인하세요”

「Korea Index」로 인터넷 환경 서비스 제공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이메일 및 정보를 주고받고, 동화상으로 강의를 들으며, 몇 번의 클릭으로 은행업무까지 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돼버렸고, 그것과 함께 삶을 향유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도 현재 세계 제일의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하며 인터넷과 관련된 인프라와 이를 이용한 각종 Web Application Business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인프라 및 웹서비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보장 역시 요구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에 문제가 생긴다면? 해외주문량이 쏟아지고 있는 어느 기업이 해외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보내야 하는데 인터넷 속도가 갑자기 느려져 제때에 보내지 못하거나, 온라인 계좌로 결제를 하려는데 접속이 차단돼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 기업은 신뢰도 잃고, 하루만에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정보통신 벤처기업인 (주)엔프라테크(사장 吳穗榮·86년工大卒)는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접속성공률, 수신속도, 단절성 등을 1년 내내 감시·측정할 수 있는 솔루션 및 제반서비스를 제공하는 OSS(Operating Support System/Service) 전문회사이다.

1997년 설립된 엔프라테크(www.enfratech.com)는 국내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과의 산학연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차세대 인터넷 관련 솔루션들을 개발

하며, 국내 모든 ISP 사업자들에게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QoS 및 SLA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1998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품질측정을 실시해오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품질수준 측정 및 평가용 소프트웨어 도구인 nAgency(엔에이전시)를 개발 공급했으며, 2000년 7월부터는 인터넷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포털 서버(www.nLogon.com)를 개설 운영해왔다.

이후 기업회원 및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엔에이전시와 더불어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한 nEye(엔아이)를 개발, 인터넷망에 대한 문제인식과 효율적인 이용을 스스로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nEye를 설치한 인터넷에 접속하면 이용자는 인터넷 접속현황, 접속지연, 단절시 원인, 속도 저하, 다운로드 및 업로드 속도, 사용시간 등을 화면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용한 정보들을 메시지 형태로 읽을 수 있어 그동안 인터넷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던 이용자의 인터넷 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안겨다줬다.

지난 2월 5일부터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MPLS World Congress 2002 Conference」에서 18개의 참여업체



吳穗榮 사장

가운데 아시아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제품을 출품한 엔프라테크는 참가업체 중 유일하게 MPLS 트래픽엔지니어링(TE)을 기반으로, 트래픽모니터링, 가상사설망(VPN), QoS 및 LSP Provisioning, Global Optimization Algorithm, 시스템의 구성관리 등을 통합 제공하는 솔루션 「nFRAworks」시리즈를 내놓아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엔프라웍스 SLA(Service Level Agreement) 솔루션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간에 체결된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해주며,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장애 처리를 표준화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서비스 이용자는 계약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한 멀티프로토콜 라벨 스위칭(MPLS)기반의 엔프라웍스 시리즈로 호평을 받은 엔프라테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영국·이탈리아·싱가포르·사우디아라비아·헝가리·우크라이나·대만 등의 업체로부터 향후 협력 의사를 받으며, 베타 테스트를 요청받는 등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엔프라테크는 지난 2002년 4월 1일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와 트래픽 측정 시스템인 인터넷 기상도(traffic.nic.or.kr : 망장치통계수집 서버, 능동측정기, 트래픽 측정서버, 사용자 품질특정 서버, 측정관리 서버)를 3년 동안 독점적으로 기술이전 받아 최상의 토털 인터넷 환경 정보 서비스(Internet QoS, Performance & Audience Measurement Service)를 제공하는 Korea Index를 시작했다.

2003년 1월부터 완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Korea Index는 ISP,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업체와 웹 서비스 업체, 네트워크 장비업체, 대형 Portal 운영업체,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업체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 등에 인터넷 트래픽 정보와 사용자 품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바일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그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IT 산업의 성장과 인터넷 보급의 확대에 따른 인터넷 트래픽과 네트워크 품질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의 인터넷 품질 측정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종합적인 인터넷 트래픽 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IT 선진국형 서비스로서 수출에 대한 기대 또한 무척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끝으로 吳사장은 『국내시장의 보호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인터넷 산업 선진국에 진출하여 OSS 관련분야 세계 5위 이내의 업체로 등극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表)



엔프라테크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환경 정보 서비스.

2003년 (癸未) POCKET DIARY를 발송해 드립니다.

2002년 (壬午)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모교 발전과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애써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년과 같이 금년에도 DIARY를 제작하였습니다.

SIZE와 VOLUME을 줄여 편의성을 높이고 새롭게 변신한 포켓용 DIARY를 평생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11월 말까지 1차로 발송완료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연말까지 회비를 납부해 주시는 동문(이사, 일반 포함)께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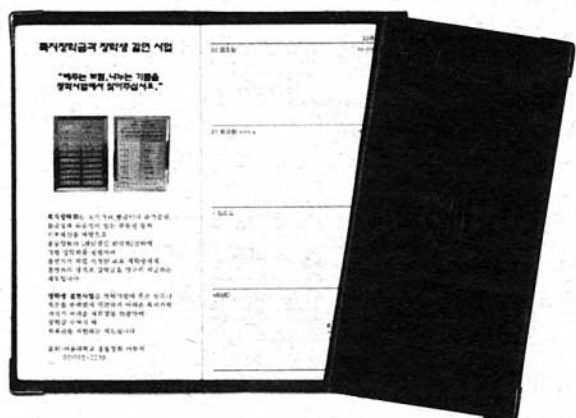
歲暮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오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연 회 비	평 생 회 비
일	반	20,000	200,000
이	사	70,000	500,000

회비납부 방법 : 연회비 - 지로납부

평생회비 - 「조흥은행 397-03-00284」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계좌로 온라인 입금
입금후 동창회 사무처로 연락요망(문의 및 안내 ☎ 02)702-2233)

서울대총동창회사무처





서울지검 남부지청 金憲範검사

사회 정의 실천하는 법조인 동문 4인방

처남은 판사, 부인·처남댁은 변호사로 활약

『매력적이고 자유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자기 발전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대로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 있어서 좋아요』

「법조인」金憲範(89년 法大卒·서울지검 남부지청 공판부 검사)동문이 말하는 그의 직업관이다. 그의 가족 가운데는 부인 全賢姬(90년 齒大卒·대외메디컬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동문, 처남 全相根(88년 法大卒·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동문 그리고 그의 부인 全順德(88년 藥大卒·법무법인 이산 변호사)동문이 공교롭게도(?) 같은 법조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들 네 사람을 따로따로 살펴보면 법조인이고, 부인들이 의료계에서 법조계로 직업을 전향했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연계성을 찾아볼 수 없다. 어떻게 해서 같은 길을 걷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그저 인연이라고 말할 뿐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 모두에겐 「법조인」이 갖는 자유로움과 초지를 관철시키는 성향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金憲範동문이 94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후로 全相根동문과 全賢姬동문은 각각 95년과 96년에, 全順德동문은 2년 뒤인 98년에 사시를 통과했다. 비슷한 시기에 법조인이 된 이들은 모두 84학번인데다, 金憲範동문과 全相根동문은 같은 학과 동기동창이기도 하다.

어릴 적 삼촌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金동문은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면서 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소신껏 법대를 지원했다. 비록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지만, 자녀(3녀1남)의 교육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들이 가고자 하는 분야를 적극 지원해주신 분들이었다.



좌로부터 金憲範·全賢姬동문 내외, 全順德·全相根동문 내외(주간동아 사진 제공).

부모의 강력한 권유로 모교 치대를 입학하게 된 全賢姬동문의 어릴 적 꿈은 판·검사였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여자가 그런 일에 종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장 안정적인 의사나 치과의사로 성공하기를 바랐다. 그래서인지 대학을 입학하고도 全賢姬동문의 마음 한 구석엔 이름 모를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金憲範동문과는 「고전 연구회」라는 동아리에서 신입생 시절 만나 캠퍼스 커플이 됐다. 둘 다 고전을 공부하기 위해 들어갔지만 알고 보니 당시에 소문난(?) 운동권 동아리였다. 민주화 바람이 한창 불던 시절, 적극적으로 데모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어수선하고 복잡한 분위기 속에서 늘 상 함께 행동하는 바람에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됐다고.

全동문이 본격적으로 법률계통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미 치과의사로 활동

하면서 아이까지 가진 아줌마가 됐을 때였다. 대학졸업 후 본격적으로 사시 공부를 시작한 金憲範동문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문득 자신의 어릴 적 꿈이 떠올랐다. 외과의사에서 변호사로 탈바꿈한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 「닥터스」를 읽고, 주위를 둘러보니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결국 全동문은 처음 가졌던 꿈을 실현시키기로 결심한다. 당시 全相根동문도 사법시험 공부를 하고 있던 터라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며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합격을 하게 됐다. 현재 全동문은 억울하게 의료 사고를 당한 환자들 또는 의료분쟁에 휘말린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최고의 배상을 얻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全相根동문의 첫인상은 판사답게 모범적이고 차분한 스타일. 하지만 그는 준

프로급 실력을 갖춘 스타크래프트 매니아이자 바둑과 당구에도 일가견이 있을 정도로 다재다능하다. 全賢姬동문과는 한 살 차이. 어릴 적엔 누나의 그늘에 가려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는 악바리 근성을 보이며 처음의 목표였던 모교 법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정의를 구현하고, 잘못을 판단하는 판·검사들 가운데는 끝까지 그 직위를 고집하는 이는 그다지 많지 않다. 남자로서의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다른 분야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金憲範동문과 全相根동문에겐 그러한 미래 계획이 없다. 변호사처럼 큰 돈을 벌거나 세간의 주목을 끌지 못하더라도, 이들은 판·검사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강조하며 계속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사회악을 일소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全順德동문과 全賢姬동문의 공통점은 느지막한 시기에 변호사가 됐다는 점과 각자 치과의사와 약사라는 이력을 가졌다는 점이다. 全順德동문의 어릴 적 꿈은 변리사가 되는 것이었다. 비록 주위의 권유로 약대를 들어갔지만, 졸업 후 약사로 일하면서 변리사 공부를 따로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업무에 매력을 느껴 특허 및 상표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없다는 것을 발견, 때마침 사시에 합격한 남편 全相根동문을 보고 용기를 냈다. 특허전문 변호사로서 맹활약하고 있는 그녀는 약품 및 화학과 관련된 특허권 분쟁, 지적재산권 소송에서는 패소한 적이 없을 정도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이다.

한편 全賢姬동문과 全順德동문이 변호사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집안 남자들의 가정적인 성격 덕분이다. 金憲範동문과 全相根동문이 시험 준비를 할 때 부인들의 적극적인 내조를 받았듯, 이들 역시 부인들의 갑작스런 일탈(?) 선언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외조에 힘썼다. 판·검사로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이 집안 남자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꿈이라고.

〈表〉



독이 되는 술, 적당히 마시면 약 된다

權赫欄(77년 保大院卒)(주)시로텍 코리아 대표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위에서 10~20%정도가 흡수되고 나머지는 소장에서 흡수, 혈액을 타고 급속히 전신의 각 조직으로 전달돼 얼굴이 붉어지고 맥박수가 증가되며 중추 신경이 취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알코올이 ADH 등의 분해 효소에 의해 아세트알데하이드(acetaldehyde)와 식초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CO_2 (탄산가스)와 H_2O (물)로 분해 될 때까지 지속되며, 섭취한 알코올의 80~90%가 간에서 처리된다. 간은 한 시간에 알코올 100~150mg/kg(체중) 정도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체중 70kg 정도인 사람이 한 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알코올은 3백60cc맥주 한 병 정도로서 그 이상 마시게 되면 숙취로 남게 되는 것이다.

알코올의 흡수 속도가 빠를수록 빨리 취하며 술에 취하는 정도도 여러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식사 후의 음주는 음식물이 알코올의 흡수를 느리게 해주기 때문에 빈속에 마시면 술에 더 빨리 취한다. 또 단시간에 마시는 것이 더 빨리 취하고 탄산화술이 더 빨리 흡수된다.

남성이 여성보다 체지방이 적기 때문에 알코올이 더 빨리 흡수되므로 간에서의 처리 능력이 같다면 주량은 체표면적에 비례하지만 같은 조건이라면 여성보다 남성이 더 빨리 취하고, 뚱뚱한 사람

보다 마른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으며,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든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빠르게 올라가므로 자신의 신체 조건과 적정주량을 알고 마시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백가지 보약 중에서도 으뜸간다하여 백약지장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지만 반대로 이 좋은 술도 지속적인 과음을 하면 백가지 독 중에서 으뜸이라 하여 백독지장이라 일컬으며 심신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과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다양해, 심하면 치명적인 상태로 될 수도 있으므로 술을 알고 마시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만성과음자들은 구강암이나 식도암 및 후두암 발병률이 높으며 위장질환과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변이 초래돼 치명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심장근육을 공격해 관상동맥질환을 유발하기도 하며, 급성신장염 등 신장기능의 악화와 뇌에도 영향을 미쳐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알코올이 뇌신경억제제로 작용해 뇌기능을 억제해 영향받는 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뇌의 측두엽에 영향이 미치면 소위 기억을 못하는 상태, 즉 필름이 끊기기도 한다. 뇌의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주위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며 집도

잘 찾아가게 되지만, 술이 깬 후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중풍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폭음은 급성췌장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과음으로 인한 고지혈증과 남성들의 발기부전과 정자의 수가 적어지고 정자의 운동성이 떨어져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여성들의 생리불순과 불임의 원인 및 임신중의 음주로 기형아를 출산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연말연시 음주후의 부부관계로 태어난 신생아에서 알코올의 영향이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로 술도 잘 마시면 약이 되는 경우도 많이 알려져 있다. 즉,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 해소 등 정신적 해방감을 느끼고 기분을 좋게 해주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등 인체 신진대사를 좋게 하여 위액분비와 호르몬 분비 촉진 등으로 성적인 흥분을 야기해 성생활에 도움이 된다. 영국의 의학자 마멋 등 여러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적당한 음주는 비음주자에 비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증가시키고, 악성 콜레스테롤인 LDL은 감소시켜 장수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 등이 다년간 주량과 사망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소량의 음주자들이 비음주자들보다 사망



률이 22%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건강에 좋다는 결론을 내리는 등 많은 보고들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술을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마실 것을 권한다. 화가 나서 마시는 술은 독이 되기 쉬우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알코올 성분이 충분히 분해될 수 있도록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다. 또 빈속에 마시는 것을 삼가며, 독한 술은 묽게 희석해 마시고, 적당한 안주를 많이 먹고, 술을 여러 종류 섞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경우 알코올 농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술 순서로 마실 것과 바른 자세로 어깨를 펴고 탈수를 막기 위해 수분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음주 후 2~3일간의 금주로 휴간기를 갖고, 해장술을 삼가고 음주후의 사우나 등은 오히려 해가 됨을 주의하기 바란다.

참신한 소재 개발이 세계 패션 주도

沈雲花(81년 家政大卒)패션디자이너·(주)베리카 대표

해외진출의 인연을 맺게 해준 CJ홈쇼핑과의 5개년 프로젝트에 따라 지난 10월 두 번째 파리컬렉션을 마치고 돌아왔다. 다시 내년 3월의 컬렉션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15~18분 정도 걸리는 패션쇼를 위해서 통상 4~5개월의 준비기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패션쇼 준비만 하나」라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국제 패션무대에서 경쟁력 있는 디자이너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뿐 아니라 다른 디자이너에 비해 2~3배의 효율성까지 견비해야 한다.

최근 주가가 높은 루이비통, 샤넬, 구찌, 프라다 등의 수석디자이너들 뒤에는 대규모 재정 후원사의 자본력이 뒷받침돼 생산라인, 마케팅라인, 원부자재 개발라인, 아이템별 디자인 스탠프 등 막강한 지원체제가 이뤄져 있는 실정이다.

이들과 우리 나라 현실을 비교 설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조차 든다. 패션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극명하며, 패션 선진국에서 패션과 관련된 모든 인프라들은 백여 년 역사 속에서 성

장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경쟁할 것인가?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엄두도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다행히 우리가 진출하려는 해외무대는 기독교권만이 판을 치고 있는 곳이 아니라, 참신한 감각의 패션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미개척지」이기도 하다.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은 유럽무대에서 명성을 얻은 후 미국과 아시아에서 판매시장을 형성, 확장하고자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모든 예술의 주된 흐름이 퓨전, 즉 여러 종족과 지역간의 문화혼합이 테마로 등장하고 있는 지금, 발굴의 여지가 풍부한 오리엔탈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즉 능력 있는 아시아 디자이너를 찾기 위해 관심을 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뜻을 둔 아시아, 한국의 디자이너에게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할 기회는 문이 더 크게 열려 있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다시 말해 서양성(westernism)에 비해 경쟁력 있는 동양성(orientalism)은 과연 무엇일까?

웃의 양식차이로 희소성 있는 한복인

가, 그럴듯하게 흉내낸 소재일까? 트렌드와 상관없는 자기만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하는 비상함(?)일까? 트렌드를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닌, 트렌드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디자인을 보여주는 것일까? 이것도 아니면 해외 컬렉션을 국내홍보용으로 활용하면 그만인 것일까?

디자이너가 자신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 중 하나인 소재의 상황을 보자. 디자이너로서 최신의 소재를 접할 가장 빠른 방법은 「프리미어 비전(premiere vision)」이라고 하는 파리 소재전시회를 통해서다. 이것은 패션쇼 6개월 전에 그 시즌의 소재를 제안하는 전시회이다.

디자이너가 그곳에서 소재를 구입해 패션쇼를 구성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허튼 생각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 전시회에 참가하는 유명 개발업체들 대부분은 대형 바이어가 아니면 상담을 제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짧은 전시회 기간 중 수천 개 업체의 소재를 다 파악해서 구매소재를 선정한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기획에 그치고 만다.

우리 나라 섬유산업은 70년대 이후 중요한 국가기반 산업이었고 최근 중국에



추격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그나마 경쟁력 있는 기술력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섬유산업은 더 이상 나갈 길이 없을 것이다.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패션디자이너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패션의 새로운 흐름을 창조하고 소재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고, 그 트렌드가 묻어 나는 참신한 소재를 개발해 내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독창성과 창조성을 엮어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4년 후 우리 업계 모두가 갈망했던 국제적인 디자이너가 탄생돼 패션계 그리고 후배들에게 한층 발전된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모교소식

기술이전 전담 특허법인 설립 「산학협력단」 내년 1월 출범

朴鍾根연구처장은 지난 11월 18일 교수들이 개발한 기술 등의 지적재산권을 소유, 관리하기 위해 재단법인 형태의 특허법인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내년 1월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공립대 교수가 획득한 특허를 국가가 아닌 학교측이 갖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이전촉진법」이 개정된 이후 기술이전 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and Transfer Office)이 설립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교는 지난 9월 공대 재료공학부 洪國善교수를 단장으로 「서울대 지적소유권 전담법인 설립 추진 실무단」을 구성했다. 이어 「기술이전 전담조직 재단

법인 서울대 산학협력단 설립안」을 마련했고 지난 11월 14일 학장회의에서 확정됐다.

洪단장은 모교 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T.L.T.O.는 기술 공급자인 대학과 수요자인 기업 간의 유통망을 형성해 줄 것이며, 사실상 음성적으로 이뤄진 교수의 연구업적에 대한 기업의 보상을 양성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국립대로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었던 모교는 이로써 기술이전을 통한 수익사업을 통해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학협력단은 鄭雲燦총장이 이사장을 맡게 되고 사무운용, 기술사업, 창업지원 등 3개 본부로 구성된다. 특허출원 및 업

체와의 기술이전 계약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물론 특허 관련 비용도 지원해줄 예정이다.

기술이전으로 얻는 수익은 액수에 따라 연구자에게 일정비율로 배분된다. 5년 안에 산학협력단이 손익분기점에 이를 수 있도록 매년 발전기금에서 5억 원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이미 T.L.T.O.가 구성된 美 MIT·스탠포드대는 1996년 각각 1천10만달러, 4천3백80만달러의 수익을 얻었고, 일본의 경우 1998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해 와세다대 기술이전조직, 게이오대 지적자산센터 등 지난해 23개로 증가했다. 中칭화대는 연구결과를 기업체에 전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업화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국·공립대 교수들이 창출한 기술이 특허권을 획득했을 경우, 「공무원의 직무상 발명은 국가가 소유한다」는 특허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특허청에서 관리했다.

대입 지역할당제

2005학년도 입시부터 실시

모교는 지난 11월 12일 현재 고교 1학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5학년도 입시부터 신입생 정원의 10~20%인 4백~8백명 정도를 지역할당제 방식으로 뽑기로 했다고 밝혔다. 鄭雲燦총장이 교육불평등 구조의 완화 등을 위해 도입의사를 밝힌 지역할당제의 실시시기와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이다.

구체적인 전형방법으로는 「1백여 명을 선발하는 농어촌자녀 특별전형 대상 확대」, 「지역할당제 대상 수험생에게 가산점 부여」, 「기존의 입시체제인 수시모집 또는 정시모집에 지역할당제 도입」 등 10여 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모교 관계자는 「지난 3월 입학한 1학년 재학생 가운데 서울 성동구와 중구, 경북 봉화군,

전남 무안군 등 전국 70여 개 시·군·구에서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원자격을 확대해 국립대로서 공적인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모교는 12월 17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안을 확정된 뒤, 교육인적자원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모교는 각 부처논의와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부터 입시관리 개선팀을 가동해 왔다.

올해의 「훌륭한 공대교수상」

文相翕·李商郁·洪國善교수

공과대학(학장 韓民九)은 지난 10월 30일 모교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올해의 「훌륭한 공대교수상」 시상식을 열고 응용화학부 文相翕교수와 전기·컴퓨터공학부 李商郁교수, 재료공학부 洪國善교수에게 시상을 했다.

1968년 모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文교수는 산업계 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주관, 교육상 수상자로 뽑혔다. 1973년 모교 전기공학과를 졸업, 통신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李교수는 영상의 영역화를 위한 효율적인 기법을 개발해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洪교수는 1980년 요업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유전체 세라믹 조성물 개발로 국내외

특허를 획득, 기술상 수상자가 됐다.

한편 공대는 지난 10월 29일 기계항공공학부 李長茂·劉丁烈교수가 미국기계학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펠로우(Fellow)」로 각각 추대됐다고 밝혔다.

진동학 분야의 탁월한 업적으로 종신 명예직인 펠로우로 추대된 李長茂교수는 1967년 모교 기계공학과를 졸업, 공과대학 학장,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1969년 모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劉丁烈교수는 유체공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연구성과를 냈으며, 현재 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국어교육과

첫 외국인교수 채용

사범대학 국어교육과(학과장 尹汝卓)는 지난 11월 5일 미국 선교사 출신인 크레이그 메릴(Craig Merrill·43·사진)씨를 1년 임기의 초빙교수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모교가 외국인 교수를 채용한 사례는 많지만 우리말을 가르치는 국어교육과에서 외국인 교수를 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릴교수는 모교 국어교육과·국어국문학과 대학원과 정신문화연구원 등에서 한국학을 배우는 외국유학생 등 석사과정 27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론」을 강의하고 있다.



지난 1978년 한국에 선교사로 2년간 체류한 뒤 美UCLA에서 한국어교육학을 공부한 메릴교수는 1987년 국내 영어교재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한국인과 결혼한 뒤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UCLA에서 한국어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던 메릴교수는 국어교육과에서 외국인 교수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국행을 택했다.

음악대학

문화관서 22회 정기오페라 공연



음악대학(학장 金 旻)은 지난 11월 6~9일 모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오페라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22회 정기오페라에서 마스카니(P. Mascagni·1863~1945·이탈리아)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공연했다.

음악대학 정기오페라는 역량이 있고 훌륭한 예술 재원을 바탕으로 한국 예술 문화의 선구자적 역할과 참되고 올바른 예술 창달을 위해 1959년 제1회 「라

트라비아타(춘회)」를 국립극장에서 공연된 이래 올해 22회를 맞이했다.

연출과 기획을 맡은 성악과 朴世源교수는 「유럽중심의 문화에 비해 다소 부족한 아시아문화가 아시아 대학간의 교류를 통해 세계 전반의 문화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연의 의미를 밝혔다.

특히 교류협정을 맺은 日동경대 예술대 재학생 3명이 함께 출연해 더욱 의미가 깊었다.

모교 병원

제4회 공공부문 혁신대회 수상

모교 병원(원장 朴容眩)은 지난 11월 1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공공부문 혁신대회에서 어린이병원학교를 운영한 공로로 기획예산처 장관상을 수상했다.

2백3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3백99개의 혁신사례를 수집, 그 중 12개가 최종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 가운데 모교 병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암투병 어린이 및 만성 신장 질환 어린이 등 장기간의 투병으로 학교생활을 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1999년에 개교한 모교 어린이병원학교(교

장 申熙永교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교사진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주말 공개강좌

말기암 환자·가족 대상

모교 병원은 지난 11월 2일 B강당에서 「진행 및 말기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주말 공개강좌」를 개최했다.

모교 병원 호스피스실과 암상담팀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강좌는 「의료문제」, 「통증과 약」, 「식사 관리」, 「간호 관리」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김미라 호스피스 전문간호

사는 「이번 강좌를 통해 말기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여러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방암 상담센터 개설

모교 병원은 지난 11월 7일 간호실무교육실 102호에서 유방암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교육을 실시한다.

유방암 상담센터는 유방 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의 건강 증진과 수술 후 회복운동 및 영양관리법, 자가검진법, 합병증 관리 등을 상담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는 朴容眩원장, 유방암 상담센터장인 외과학교실 盧東榮교수 등 상담센터 관계자와 유방암 수술 환우 모임 「비너스회」 50여 명 등이 모여 개소를 축하했다.

미식축구부

서울지역리그 우승

미식축구부(지도교수 黃禹錫)가 지난 11월 17일 서울시립대

운동장에서 열린 2002 추계 미식축구선수권 서울지역리그 5차전에서 중앙대에 15대7로 이겨, 5전 전승으로 서울 지역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승

한 미식축구부는 南成男(95년 農大卒·삼성화재)감독이 감독상, 조한범(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4년)군이 최우수 선수상, 김동백(응용화학부 4년)군이 우수 수비상을 받았다. (鎬)

특별기고

서울대는 지금 개혁의 첫 발을 내딛고 있다

柳根培(77년 社會大卒)모교 기획실장·지리학과 교수

대학은 수백 년을 이어오는 얼마 되지 않는 제도 가운데 하나이다. 어느 체제를 막론하고 그 체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대와 호흡하면서,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급속한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는 오늘날, 대학이라는 유기체는 안팎으로 밀려드는 압력으로 숨가쁘다. 서울대도 학내외에서 가해지는 변화의 압력에 대해 사안에 따라서는 전통을 지키기에 노력하고, 때로는 민감하게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변화 자체에 주목하는 것보다는 변화를 수용하는 대학의 체질강화가 더 필요하다. 지난 7월 鄭雲燦총장의 취임 이래 대학의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지성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 모든 것에 우선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괄적인 목표 아래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조용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글쓰기 훈련강화, 교직원과 학생의 복지증진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노력은 다음 기회로 돌리고 여기서는 몇 가지 주요한 개선노력과 현안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우선 대학 운영의 민주화를 제도화하여 정착시키는 일이다. 현재 대의기구라 할 수 있는 평의원회는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고등교육법과 서울대학교 설치령, 서울대 학칙에서 비롯되는 외적 제한이 뚜렷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실천하려는 학내 구성원의 의지가 빈약했던 것도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다.

현재 대학 교수회의와 학장회의가 실제로 학내에서 중요한 대의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교수회의가 각 대학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돼 있고, 학장회의의 구성원도 각 대학의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 전체의 목표와 운영방향을 위해서는 이러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평의원회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

대의기구는 소극적으로는 총장이나 학내의 힘있는 집단의 독주를 막는 등의 견제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학내의 의지를 집결하여 지성의 권위를 회복하고 서울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학 운영체제와 함께 총장과 학(원)장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지난 8월부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분야를 전공하는 교수들로 연구팀이 조직됐고, 몇 가지 안이 도출되는 과정에 있다. 특히 대의기구는 가까운 시일 내에 학내외의 자문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될 것이다. 총학(원)장 선거제도의 개선도 총장의 공약사항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직접선거와 간접선거,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의 혼합 등 다양한 안을 세워 놓고 연구중이다.

학장회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달에 조직된 운영소위원회는 5명의 학(원)장들로 구성돼 있고, 사안에 따라서 해당 부서의 장이 참여한다. 서울대 전체의 발전방향과 효율화를 위해서 새로운 방안을 개발하는 등 학장회의에 쌍방향의 의사소통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대학의 민주화는 결국 자율성 확보로 귀결되는데, 대학의 자율은 입시제도에 그 정도가 잘 드러난다. 현재 지필고

사나 과거의 본고사를 불허하는 등 대학 입시의 자율성은 심하게 제약받고 있다. 우수한 학생들이 지망하는 서울대로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변별력을 갖는 전형

대의기구 강화와

선거제 개선 통해

대학의 민주화

정착시킬 것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여 어떻게 가르쳐서 이 사회의 지도자로 육성할 것인가는 대학이 고민해오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다. 서울대에는 전국의 수재들이 입학해오고 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이 계발된다. 하나에 똑같은 하나를 더하면 둘이지만, 서로 다른 두 개를 더할 때 나오는 답은 둘 이상이다. 이른바 창발성의 발현이다.

Seoul National University에서 National은 국립대학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전국을 망라하는 각 지역의 수재들이 모여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어느 지역 출신의 소위 전문직종 자제들이 주를 이루고, 다양한 지역에서 합격생을 내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재들의 집단이라는 전통적인 「서울대생」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

잘 알려진 것과 같이 소위 지역할당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의 서울대 동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될 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많은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수급할 수 있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결코 적지 않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연구팀이 구성되어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학내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십여 년 전 서울대의 연구능력이 세계적으로 8백등 또는 수백 번째에 불과하다는 등 그 위상이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진 적이 있었다. 그러한 글을 썼던 분이 충격을 주어야 열악한 서울대의 물적·인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노라고 해명은 했지만, 그 잘못된 정보는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파고들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학을 무슨 잣대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몇몇 지표를 참조한다면 서울대는 세계 일류대학으로 힘차게 내딛고 있다.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순위를 보면 1998년 세계 94위에서 2001년에 40위로 도약했고, 올해 30위권으로 진입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

다. 물론 연구성과를 가리키는 지표로서의 SCI를 어떻게 보느냐에는 논란이 있지만, 서울대에 주어진 자원을 고려한다면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연구의 질적 성장, 내연적 확장으로 관심을 돌릴 때가 되었다. 서울대의 교수진 한사람 한사람을 살펴보면 매우 우수하다. 특히 몇몇 학과나 학부의 교수진은 세계 유수의 대학과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서울대에서 강의되는 지식은 양에서나 질에서 훌륭하다. 그러나 열악한 도서관과 실험실의 사정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도서관 환경을 보면 서울대의 장서수는 2백만권으로 동경대의 7백만권, 하버드의 1천4백만권에 크게 처져 있고, 서울대 도서관 자료구입예산은 3백80만 달러(약 46억원)로 동경대의 3분의 1, 하버드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고에서 조달되는 도서관 예산은 해마다 줄어든다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이러할진대,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점차 정교화됨에 따라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이공계 실험실의 기자재 형편은 어떠하겠는가? 기술적 지식의 전수는 교수들의 노력으로 보완되지만, 도서관과 실험실의 내실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학생들의 창조적 능력은 성장되기 어렵다.

지난 10월 BK21 연구사업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중간평가에서 서울대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다. 2개의 사업단이 탈락되고, 몇 개의 사업단은 연구비

강남순환도로 및

나들목의 건설은

교육환경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가 크게 삭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연구사업단의 예산이 급년 초까지 소급되어 20%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BK21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각 사업단의 연구성과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전체의 구조조정, 즉 입학생의 모집단위를 최초의 약속대로 광역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대가 평가에서 크게 낮은 점수를 받았고, 대학에 주어지던 교육개혁지원비가 반액이나 삭감되었다. 이 낮은 점수가 다시 각각의 연구사업단 평가에 전이되어 훌륭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사업단은 낮게 평가되고 말았다. 이층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대 사업단 각각의 연구업적은 훌륭하지만, 대학 전체의 구조조정이 미진하여 사업단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그



러나 평가원칙과 절차의 적용에서 일관성을 결여하는 등의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노정시켰다.

서울시는 서울대 정문 앞 50미터 지점에 6차선 고속고가도로와 나들목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라고 명명된 이 도로는 서울대 후문의 낙성대를 지나면서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에 들어있는 부속 중·고등학교 부지의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 정문 앞에는 장기적 발전을 염두에 두고 두산그룹으로부터 구입한 토지에 나들목이 들어서고, 이 구간의 건설은 두산그룹 등이 결성한 민간 컨소시엄이 맡게 되어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면담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을 예로 들면서 고가도로를 구시대의 유물로 평가하고, 이 도로건설 계획의 수립과정에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울시가 이 도로의 건설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이 도로의 교통효과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의뢰한 강남도시순환고속도로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L자형으로 굽어있는 노선의 위치가 동서교통의 원활에 적합하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관악산 남쪽의 과전을 지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고속도로와 그 기능이 중복되어 있다. 서울대 정문 앞의 나들목은 외부의 교통량을 유인해 이미 정도를 넘어선 교통체증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소음과 매연 등은 교육과 연구환경을 악화시키고, 정문 앞의 고가도로로 말미암아 경관도 크게 훼손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대는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설계되었던 당초의 계획노선을 택하거나, 지하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토지수용비가 많이 든다거나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대안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교육협의회는 이 문제를 한국 대학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범대학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모교를 위해서 동문들께서 지혜를 빌려주고 있다.

서울대는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본연의 자리에서 멀리 벗어났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바로 지성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이다. 서울대의 의견이 존중되고, 서울대의 구성원이 내는 목소리를 사회가 경청하는 그 자리를 다시 찾으려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서울대가 추구하는 개혁의 목표이다.

SNUA OPINION LEADER

유전자 단위서 밝혀진 위암 원인

국내에서 질병 원인유전자 규명과 치료방안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최초의 성공사례인 「RUNX3」 유전자 발견을 통해 위암의 발생 원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위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난관이 있다. 10년 이상의 연구 개발 기간과 수백억원의 연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위암 발병 환자들에게 희소식을 주며,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투자가 절실하다. 그렇다면 「RUNX3」 유전자 발견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 유전자가 구체적으로 인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험 결과들을 「RUNX3」의 발견자인 충북대 의대 裴錫哲 교수에게 들어보았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암은 그 원인이 유전자 이상 때문임은 오래 전부터 밝혀져 왔다. 그러나 과연 어느 유전자가 어떻게 잘못된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지는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규명된 바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질병의 근본적 발병 원인의 규명은 해당 질병의 치료법 개발을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현대 생명과학 연구 분야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위암은 한국·일본·중국에 특히 많은 암으로서 국내에서만 연간 4만명, 세계적으로는 연간 약 1백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위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치사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발병 원인규명 연구가 수많은 연구실에서 수행돼 왔으나 최근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최근 본 연구실에서는 위암의 발병원인을 유전자 수준에서 밝히는데 성공함으로써 위암치료제 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기에 이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유전자 조작으로 질병 규명

지난 50년 동안 생명과학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그 수준이 인간의 생명현상에 대한 호기심 만족 수준을 넘어 생명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 질병의 이해와 극복의 측면에서 볼 때 수많은 기술적 발전 중에서도 인간 유전자의 해독과 유

전자 조작동물 생산기술의 확립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에 의해 최근 인간 유전자 전체에 대한 지도가 작성됐으며 그 결과 생명현상을 이해하고 갖가지 난치병의 원인을 극

인간 유전자 지도는

생명현상 이해와

난치병 원인규명의

중요한 기초자료

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가 마련됐다. 과거 수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해 염색체상의 어느 부위의 비정상화가 어느 질병의 발병원인이 된다는 사실이 상당부분 확인돼 있었다. 그러나 현미경상에서 관찰된 특정 염색체 부위가 실제로 분자수준에서 볼 때는 너무나 광범위해 정확히 어느 유전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밝힐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인체 유전자지도는 이러한 염색체 부위에 어떠한 유전자들이 배치돼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기에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의 후보들을 알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때로는 수백 개에 이르는 후보 유전자 중 어느 유전자의 비정상성이 과연 실제로 해당 질병의 발병원인이 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유전자를 조작한 동물 생산 기술은 이 단계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동물에서 후보 유전자를 제거하고 동물이 과연 사람의 질병에서 관찰되는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유전자의 변형이 해당 질병의 원인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팀은 1995년 우연히 「RUNX3」라는 유전자를 발견했으며 이 유전자가 갖는 생물학적인 기능분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이 유전자가 무엇 때문에 사람의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중 인간 유전체 지도가 발표됐는데, 이로부터 우리는 「RUNX3」가 존재하는 「1p36」이라고 명명된 1번 염색체의 특정 부위의 변형이

위암의 발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됐다. 즉 「RUNX3」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위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팀은 「RUNX3」 유전자가 제거된 생쥐를 생산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만약 이런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RUNX3」를 가지지 못한 생쥐는 위암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생쥐를 탄생시키기 위해 줄기세포(stem cell) 배양, 유전자 조작, 세포내의 유전자 도입, 배아식 등 다양한 생명과학 기술이 동원됐으며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러한 연구결과 「RUNX3」 유전자 조작 생쥐가 태어나게 됐으며 이 생쥐가 보여준 증상은 생명과학자로서도 믿기 어려운 놀라운 것이었다.

「RUNX3」 제거된 쥐 위암 발병

그 생쥐들은 한 마리도 예외 없이 위암과 유사한 증상으로 태어난지 얼마 안 돼 사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RUNX3」의 기능상실이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이 규명됐다.

이는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와 유전자 조작동물 생산기술의 합작에 의한 개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진 다양한 보조적인 연구를 통해 「RUNX3」 유전자는 원래 위암을 억제하는 활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전자가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위암의 발병으로 이어짐을 알게 됐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다음 단계의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 위암 환자에서 나타나는 「RUNX3」 유전자의 변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

「RUNX3」 발견을 계기로

위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지는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로서 변형의 형태에 따라 치료법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가 판별되기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 개발은 변형된 유전자의 원상복구가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암과 관련된 유전자 변형은 대부분 유전자 상실(deletion) 또는 점돌연변이(point mutation)로서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비가역적인 변형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질병 발병의 원인이 규명된다고 해서 꼭 치료법 개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본 연구팀은 먼저 다른 암원인 유전자에서 흔히 관찰되는 유전자 상실과 점돌연변이의 가능성을 위암 환



裴錫哲

- 1985년 모교 약대 졸업
- 1991년 모교 대학원 박사학위
- 1992년~1994년 日교토대 바이러스 연구소 박사연구원
- 1994년~1995년 프랑스 리옹 INSERM 연구소 박사연구원
- 현재 충북대 의대 의학과 교수

자의 조직에서 분석했다. 2백명의 환자 시료를 분석하는 대규모 작업 결과 「RUNX3」의 비가역적 변형은 위암에 극도로 드물며 대부분 유전자 메틸화에 의한 가역적인 변형 때문에 불활성화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RUNX3」의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그것이 가능함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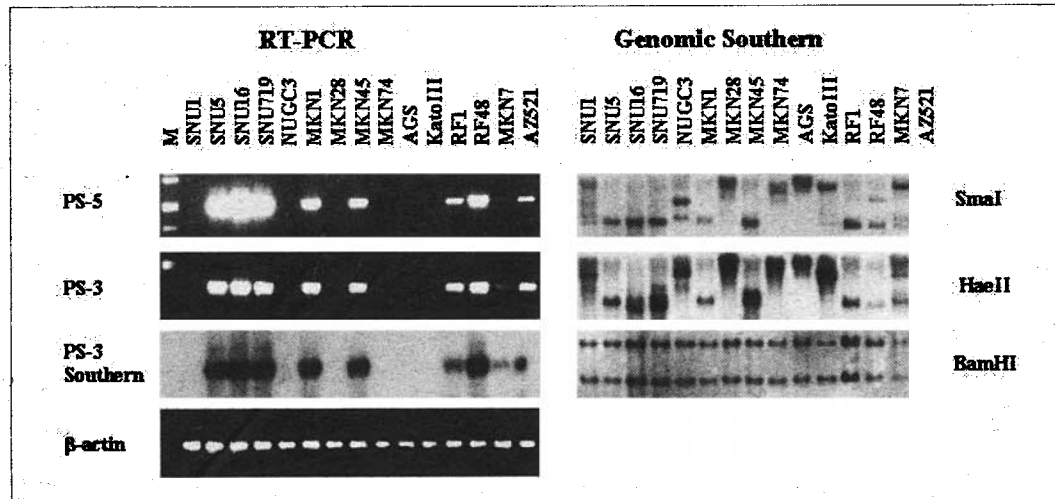
최근까지 알려진 다양한 암원인 유전자 중 화학물질을 이용해 재활성화가 가능한 경우는 비교적 드물며 이를 적용할 수 있는 환자의 숫자는 대단히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위암의 경우는 달랐다.

대부분의 위암환자가 「RUNX3」의 재활성화에 의해 치료될 수 있음이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계최고의 권위 생물학 학술지인 「Cell」에 실렸으며 「Nature」 등의 학술지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암 치료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결과가 실용화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위암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인지는 우리에게 남겨진 다음 과제이다. 「RUNX3」의 활성화를 표적으로 하는 위암 치료제의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단일 품목으로도 연간 수조원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엄청난 생명공학 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10년 이상의 연구개발 기간과 수백억원의 연구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의 질병 원인유전자 규명과 치료방안 연구에 있어서 본 연구가 최초의 성공사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초과학을 위한 투자는 결국 현실에의 응용을 위한 것인 만큼 어렵게 얻은 중요한 연구 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암억제 유전자 RUNX3가 위암세포에서 불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한 실험결과.

밖에서 본 서울대, 서울대인

총대 매겠다던 서울대인을 기억하며...

金修平(가톨릭의대 교수) : 尹任重(59년 醫大卒·산업보건협회장)동문 사돈



고등학교 동기들이 당시 서울대에 많이 입학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동기모임에 나가면 10명 중 6~7명이 서울대 출신이다. 한창 일할 나이에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던 고등학교 동기들이 이제는 나이 60이 되어 대부분 현장에서 물러나 있지만, 저녁에 모여 술자리라도 벌이면 각자의 전문분야에 맞게 뚜렷한 소신들을 펼치는데, 목소리가 큰 친구들이 서울대 출신인 것을 보게 된다.

아직도 현역에 머물고 있는 동기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료와 후배들에게 능력도 인정받고 여유 있는 마음을 보이는 태도 때문에 평판이 좋은 서울대 출신인 고등학교 동기들을 만나면 내 자신도 기분이 좋아진다.

의과대학 시절엔 클럽활동을 했는데, 이 모임에 서울대 의과대학, 치과대학, 농과대학(수의학과 포함), 간호대 학생 등 인원수에서 서울대생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의 生命敬畏 사상을 이념으로 한 모임의 성격상 모두

남을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의 소유자들이었다. 이들과는 젊은 날의 꿈을 간직한 채 아직도 좋은 선후배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군의관 생활을 거치고 축소된 전문분야 속의 생활을 하면서 학회활동을 위해 각 대학별로 모여 봐도 훌륭한 서울대 출신들이 많은데, 그만큼 사회 각 분야에 유능한 서울대 출신들이 꾸준히 진출한 탓이라.

흔히 서울대 출신들은 엘리트 의식이 강해 남들과 타협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들과 평한다.

2000년 의료계는 의약분업 사태로 어려움이 많았고, 후유증은 지금까지 국민들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괴롭히고 있다. 정부는 지역과 직장의료보험의 통합으로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 나자, 의료보험 개혁의 실패를 의약분업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만회하고자하여 무리한 의료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의약분업의 주역들은 서울대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를 반대해 바로 잡으려 했던 중심에도 서울대 출신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항간에선 의약분업 사태 때의 혼란을 의사와 약사들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이미 1998년 11월부터 의료계와 약계에서는 분업의 연기를 주장했다. 현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한 1백대 공약과제 중 하나인 의약분업은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전면적인 시행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 정부는 의료보험 통합을 주장한 시민단체와 당시 발족시킨 국민회의 「보건의료 효율화와 선진화를 위한 정책기

획단」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의약분업 추진위원회」에 이의 강력한 시행을 요구토록 종용했다.

의료계는 1999년 말 장충체육관에서 집회를 열었고 이후 2000년 5월부터 휴진과 부분파업에 들어갔는데, 그 해 6월 4일 의약분업을 저지시키기 위한 의료계 과천궐기대회를 계기로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발족됐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수협의회가 결성된 의과대학이 전체의 절반정도인 22개 대학 정도여서 첫 모임에 각 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모두 모였고, 이 자리에서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을 서울대에서 맡게 되었다. 아무도 맡으려하지 않는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된 경위는 「일의 발단이 된 서울대가 총대를 매겠습니다」였다.

이제는 많은 명문 사립대들이 우수한 인재들을 길러내고 있고, 지방에도 국립대들이 있는데 왜 서울대를 택하려하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도 사회의 중심에 서울대가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수한 인재들이 각계 각층에 골고루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출신들만이 주류를 이루는 조직은 없으리라고 본다.

잘 지은 색동옷처럼 조화로운 사회가 언젠가는 이루어지도록 서울대와 서울대인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서 훌륭한 인재들을 키우고, 뒤섞여서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바란다.

박 성 희 문화상책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본보 논설위원)

얼마 전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빵의 명장 푸알란 사망...佛애도 불결」. 부제는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라파엘 총리 '세계 식탁의 마술사'를 잃었다」 성명

내용인즉 프랑스의 제빵업자 「리오넬 푸알란」(57)이 헬리콥터를 직접 조종, 부인과 함께 리옹섬에 있는 별장으로 가던 중 추락사고로 사망했고, 이에 대해 「라파엘」 총리가 애도성명을 발표하고 언론들이 일제히 추도특집을 내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리지민의 추모행렬도 이어졌다는군요.

제빵업자 집안에서 태어난 뒤 14살 때부터 빵을 만들기 시작, 70년대에 가업을 이어받은 뒤엔 수많은 제빵기술자들을 찾아다니며 옛날 빵 맛의 기법을 알아내 이를 재현했다는 상세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맛돌에 빵은 밀가루에 바다소금과 누룩을 써서 만든 무게 1.9kg짜리 빵덩어리를 구웠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 기사는 제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선 머나먼 남의 나라 빵장수가 죽었다는 기사를 국내 주요신문에서 인문면 톱으로 다룬 까닭, 빵장수가 세상을 떠났는데 총리가 애도성명을 내고 언론들이 일제히 추도특집을 내보내는, 프랑스라는 나라의 직업관과 사회 풍토 등등.

며칠 뒤 같은 신문에 실린 칼럼에 이 일이 다시 한번 거론된 걸 보면 상당히 뉴스가치가 있다고 본 게 분명한 듯했습니다. 그러니까 빵의 명장이 사망했다는 사실보다 그의 사망에 대해 총리와 일반 국민 모두 슬퍼한다는 데 주목한 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 역시 그 사실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놀라웠습니다. 「정말일까」

저는 솔직히 엇그제 어느 대학교수가 신문칼럼에서 「커피를 나르는 건 천하고 서류를 들고 다니는 건 귀한 일이란 말인가」라고 쓴 것을 보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교수의 논리는 커피 나르는 거나 서류 들고 다니는 거나 그게 그건데 채용시 여자들에게 「커피 심부름을 할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못하게 함으로써 그나마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커피 나르는」 직종 취업도 가로막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 교수님께선 커피 나르는 거나 서류 들고 다니는 게 똑같은 비중으로 생각되니 그동안 조교를 시키지 않고 직접 커피를 타서 드셨는지요? 그리고 그제 같은 비

「土」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가져야 사람 노릇을 한다고 생각하는 통에 머리보다는 손을 쓰는 일을 훨씬 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어단어와 수학공식을 외우느라 땀을 빼는 것 아닐까 싶은 것이지요.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 좋아하는 일,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손을 써서 하는 일은 천하고 머리와 입으로 하는 일만 중요하다고 우기고 있는 바람에 자라나는 세대와 부모 세대 모두 진흙탕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건 혹 아닐까 싶고요.

공부를 안 해도 된다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어느 분야건 수없이 많은 피땀 없이 「명장」이 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다만 사람마다 잘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각각의 일이 모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공인하는 풍토가 될 수는 없는가를 궁리해 보는 것이지요.

그러자면, 남의 나라 빵장수 사망기사만 크게 내보낼 게 아니라 우리 나라 궁중요리 전문가 관련기사도 대문짝만하게 다루는 게 먼저가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빵업자 사망에 총리가 애도성명을 발표했다는 걸 알림으로써 우리 나라에도 장인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를 짐작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국내 매스컴들이 먼저 나서서 각종 장인들을 우대하고 관련 기사를 크게 다룰 때 21세기를 맞아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직업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지 않을까 한다면 너무 소박한 바람일까요.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학입시 지목은 영원히 사라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만.

프랑스 빵장수와 한국 빵장수

「기자가 초를 좀 심하게 친 건(기사를 다소 부풀려서 쓰는 걸 「초친다」고 합니다) 아닐까. 어쨌거나 총리가 애도성명을 내지 않은 걸 냈다고 할 수 없었을 테고, 신문에서 추도특집을 실지 않았는데 실었다고 할 수 없었을 테니 「푸알란」의 죽음이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킨 건 틀림없습니다.

제빵업자, 우리 식으로 냉정하게 말하자면 일개 빵장수의 죽음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만일 우리 나라에서도 어느 분야건 나름대로의 기술로 장인이 되지만 하면 사회적으로 충분한 인정과 사랑을 받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돼도 너나 할 것 없이 대학 그것도 법대, 상대, 의대에 가겠다고 난리법석을 떨까요?

중이라면 왜 커피 나르는 일은 여자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구요.

남녀차별금지법이나 여성발전기본법, 양성평등채용법 등에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걸 부인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죽하면 그런 법이나 제도가 만들어지는 지에 대해선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여자가 돼 갖고 커피 나르는 게 뭐가 어때서』라는 식의 논리를 펴는 건 정말이지 어이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빵을 만들건, 고기를 굽건 사회적으로 똑같이 대우한다면 무엇 때문에 기를 쓰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학에 가려고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말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둥, 꼭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느냐는 둥 하면서 실제로 빵을 만들거나 고기를 구우면 우습게 알고 책상머리에 앉아 서류를 만지거나

간호대학

모교에 발전기금·장학금 전달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朴明子)는 지난 10월 16일 모교 연건캠퍼스 간호대학 신관 교수회의실에서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첫 순서로 참석자들은 준비된 버스를 타고 관악캠퍼스 박물관, 규장각 등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연건캠퍼스로 이동, 졸업 30주년을 맞는 동문들을 대표해 梁光姬(72년

卒)동문이 발전기금 5백만원과 LA지역 동문들이 보내온 2천3백달러를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모교 洪京子학장에게 전달했다.

이어진 동문 친교의 시간에 朴商蓮(79년卒)동문이 「돈 없이 빚을 갚는 지혜」라는 주제로, 국선 작가인 韓銀姬(72년卒)동문이 「나의 작품세계」라는 주제로 발표회를 가졌다. 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吳貞美

(72년卒)·鄭仙舟(72년卒)동문, 아동심리학자인 李貞烈(72년卒)동문은 미국 가정간호사, 미국재소자 상담, 간호사어머니로서의 자녀교육 등에 대한 진솔한 얘기를 펼쳤다.

또 지난 11월 19일 모교 연건캠퍼스 임상의학연구소 가든부에서 제226회 실행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월 개최한 바자회 결과보고 및 지도자간담회 준비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2003년 정기총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金彩淑(66년卒)동문을 선출했으며, 준비위원에 朴良子(64년卒)·李愛珠(69년卒) 부회장, 李金淑(74년卒)기획이사, 李仁淑(77년卒)상임이사, 趙貞淑(82년卒)홍보이사, 김지현(94년卒)서기이사, 이금문(94년卒)재정이사 등을 선임했다.

또 지방에 흩어져있는 동문들을 격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겨울방학 중에 각 지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기계동문회

신임 회장에 裴洵勳동문 선임



기계동문회(회장 禹仁性)는 지난 10월 13일 모교 관악캠퍼스 공대 엔지니어하우스에서 동문 및 가족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정기총회 겸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禹회장은 인사말에서 「동문들이 많은 장학금을 출연하는 등 후학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며 「후임 회장이 이런 동문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02년 결산 및 심의 안전에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裴洵勳(66년 工大卒·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동문(사진)을 선출했다.

신임 裴洵勳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공계 지망생이 적는데 우리 동창회에서 적극적으로 모

교 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많은 학생들이 이공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의 동창회 활동을 더 강화해 친목 도모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기계동문회는 모교 지원금으로 기계항공공학부 金民洙 부학부장에게 1천만원을 전달했으며, 재학생 김진한·이승훈·최민호·김수현군과 이미나양에게 장학금 5백만원을 전달했다.

금속동창회

「금속의 날」 행사서 바비큐 파티



금속동창회(회장 李東寧)는 지난 10월 13일 모교 노천극장에서 金東勳(50년卒)·閔炳善(51년卒)·韓鳳熙(52년卒)·朴鍾泰(52년卒)·金在中(53년卒)·金淵植(56년卒)·崔正吉(56년卒)·朴煥奭(57년卒)·羅亨用(58년卒)·李慶煥(58년卒)동문을 비롯한 동문 가족 1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속의 날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73년에 졸업한 27동기회가 최다 참석기수상에 선정돼 기념품으로 휴대용 미니 담요를 받았으며, 졸업 10·20·30·40·50주년을 맞이한 동기회 전원에게 동창회에서 마련한 기념품을 전달했다.

동문 가족들은 점심 시간을 통해 바비큐 파티를 벌였으며, 다양한 게임 및 이벤트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表>

사범대학

수련회 통해 다양한 주제 토론



사범대학동창회(회장 辛東一)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포

천군 산정호수 유스타운 수련원에서 동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목수련회를 개최했다.

수련원에 도착한 참석자들은 모교 金宗西(49년卒) 명예교수와 金商俊(52년卒) 前서울시 교육감의 특별강연을 경청했다. 특히 金宗西명예교수는 「평생교육의 개념과 필요」라는 주제로 평생교육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아실현 및 사회 발전 능력 신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으며, 金商俊동문은 우리 나라의 교육 난관에 대해 역설하며, 동문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튿날 한화콘도 온천장에서 몸을 푼 참석자들은 고석정, 제2땅굴, 백마고지, 노동당사 등을 둘러볼 예정이었으나 폭설로 인해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서울로 돌아왔다.

최고산업전략과정

학술세미나 및 골프대회 가져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趙炳祐)는 지난 9월 25일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동문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새로 입회한 28기 동문 소개에 이어 외교안보연구원장, 국무총리, 한국적십자사 총재, 세종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姜英勳 회장이 「한민족 평화통일의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또 동창회는 지난 9월 30일 경기도 광주소재 뉴서울CC에서 동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러진 이날 대회에서 단체우승을 거머쥔 14기(회장 趙鍾濟)에게 1백만원의 상금을 전달했다. 또 朴碩伊(23기)동문이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메달리스트에

남코스 玄仁周(14기)·북코스 劉永完(17기)동문이 각각 선정됐다.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단체전 준우승: 22기(회장 李昌範), 3위: 27기(회장 김정길), △개인전 준우승 崔翺五(14기), 3위: 李龍雨(22기)동문.

보건대학원

내년 1월 신년회 개최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具聖會)는 지난 11월 1일 국립의료원내 스칸디나비아 클럽에서 20여 명의 이사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2002년 동창회 사업에 대한 보고와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가 있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대통령 선거와 회원들의 사정을 고려해 매년 12월에 하던 송년모임을 신년회로 대체하기로 하고, 내년 1월 중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원명부 제작은 12월 중 완료해 동문들에게 배포하기로 했으며, 보건의료정책최고관리자과정 등 단기과정을 이수한 회원들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가정대학

「생활과학대학 동창회」로

가정대학동창회(회장 李義淑)는 최근 서초동 「삼정」식당에서 任貞彬(61년卒)·金惠善(63년卒)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사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2003년 정기총회를 내년 4월에 개최하기로 결정했으며, 동창회 명칭을 「생활과학대학 동창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만평

李元馥



2003년, 서울대 大비약의 해로!

환경대학원

해양수산부 金昊植 장관 특강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丁榮植)는 지난 11월 6일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모교 李東洙부원장, 金炯國·盧隆熙·林岡源·黃琪源교수, 金利煥(이영미술관 관장)·朴重培(대전대 교수)·李正植(국토연구원 원장) 전임 회장, 金昌益(건원엔지니어링 소장)·邊榮進(모교 초빙교

수)·禹冥仙(신안건설 회장)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조찬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연사로 초청된 해양수산부 金昊植(71년 工大卒)장관이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치고, 동문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가정책과정

朴寬用 국회의장 연사로 초청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金相賢)는 지난 11월 8일 한국언론재단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李柱範(10기)·李英淑(17기)·安昌洙(18기)·崔連植(18기)·崔載善(18기)동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강연회를 펼쳤다.

金회장의 인사말과 모교 吳然天행정대학원장의 인사말에 이

어 이날 특별 연사로 초청된 朴寬用(18기)국회의장이 「입법부의 개혁과 당면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朴의장은 11대부터 계속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통일외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가정책과정동창회 전임회장이기도 하다.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내년 1월 신년하례식 열기로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金錫喜)는 지난 11월 14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모교 吳然天행정대학원장, 崔鍾元·金俊基교수, 문헌일(6기)수석부회장, 이의근(3기)·홍창표(6기)·박병후(10기)·정장환(11기)·이상철(13기)부회장, 류진국(1기)감사 등 동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정보통신부 李相哲(71년

工大卒)장관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불참, 정보통신부 卞在一기획관리실장이 강연 내용을 대독했다.

한편 동창회는 동문들에게 11월말까지 회비를 납부해줄 것을 공지했으며, 내년 1월 중순에 신년하례식을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전자동문회

「자랑스런 동문상」·감사패 전달

전자동문회(회장 李梓旭)는 지난 11월 25일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동문 1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李회장은 후학양성을 위해 헌신한 모교 李鍾珪(48년卒)·朴松培(51년卒)·李忠雄(58년卒)명예교수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했다.

올해의 「자랑스런 동문상」에는 뛰어난 연구업적과 교육활동을 남긴 모교 李忠雄명예교수, 한국 전자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시키는데 일조한 삼성전자(주) DS 총괄 李潤雨(69년卒)대표이사 및 삼성전자(주) 디지털 미디어 네트워크 총괄 陳大濟(74년卒)대표이사를 선정했으며,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동창회 간사장을 맡았던 모교 金成俊(78년卒)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 모교 전자통신연구후원재단에 많은 기금을 기부한 모교 崔桂根(48년卒)명예교수, 대덕전자 金貞植(56년卒)회장, 삼성전자 尹鍾龍(66년卒)부회장, 모교 鄭德均(81년卒)교수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물리학부

수해 입은 학생 지원

물리학부동창회(회장 高允錫)는 지난 10월 19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高회장의 인사말과 金斗哲학부장의 모교 현황보고에 이어 태풍 루사로 수해를 입은 속초 출신 재학생 金욱래(3년)군에게 장학금 1백60만원을 전했다.

이날 특별히 모교 池彰烈명예교수와 학술원 회원으로 있는 盧在植동문이 축사를 했다.

법대11회

權炳壹 회장 선임



법대11동기회(회장 李大淳)는 지난 11월 21일 르네상스서울호텔 제이드오팔룸에서 金東益 前정무장관, 金庸來 前서울시장, 金昌悅 前한국일보 상임고문, 李圭孝 前건설부 장관, 張炳圭 前중부대 총장, 충청대 鄭宗澤학장, 삼부토건 趙南煜회장 등 동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주)지학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權炳壹(57년卒)동문(사진)을 신임 회장에 선출했으며, 아울러 참석자들은 지난 14년간 동창회장을 역임하며 모교와 동창회를 위해 공헌한 李大淳전임 회장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2003년 사업계획으로는 입학5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하기로 협의하고,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새 회장단을 구축하기로 했다.

천연섬유학과

李龍雨 회장 선출

천연섬유학과동창회(회장 蔡大錫)는 지난 10월 3일 모교 수원캠퍼스 농업생명대학 8동 앞 잔디밭에서 모교 崔炳熙·金文浹 명예교수, 가수 겸 탤런트로 활동하고 있는 金昌完(75년卒)동문을 비롯해 동문 및 가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겸 홈커밍데이 행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李龍雨(69년卒·농진청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부장)동문을 선출했으며, 총무에 諸連鎬(90년卒·모교 농생명공학부 교수)동문, 감사에 鄭仁模(74년卒)·홍성진(92년卒)동문을 각각 선출했다.

국어교육과

은사 추모집 발간기로

국어교육과동창회(회장 朴甲洙)는 최근 서초동 「봉희 설렁탕」식당에서 李應百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2001년 「李 鐸선생 추모집」간행에 이어 올해에도 「蓮圃 異河潤선생 추모집」, 「海巖 金亨奎선생 추모집」을 연차적으로 발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동창회 출판사업의 일환으로는 「경험으로 쓴 국어과 교수 학습의 원리와 실제」라는 책을 간행하기로 했다.

서양사학과

새 회장에 金浚植 동문 뽑아

서양사학과동창회(회장 鄭樂贊)는 지난 11월 20일 동창회관 관악홀에서 朴贊熙(82년卒·국민일보 편집국 차장)부회장, 金能求(88년卒·e원컴 사장)사무국장, 모교 羅鍾一명예교수, 康允哲(82년卒)감정평가사, LG전선 尹載仁(84년卒)부장, 金潤(86년卒)RTV기획사업국장 등 동문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동문의 밤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金浚植(78년卒·외환은행 지점장)동문을 선출했으며, 수석부회장에 崔甲壽(76년卒·모교 교수)동문을 선출했다. 또 지난 1999년 창립된 이후로 3년간 회장을 역임한 鄭樂贊동문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한편 토의 안건으로는 내년부터 동문회 회비와 기금을 통해 재정기반을 구축하기로 의결했다.

약대26회

모교 발전기금 1천만원 출연



약대26동기회(회장 朴濟和)는 지난 11월 9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金孝淑부회장, 金哲鎬·李晶俊이사, 趙裕燮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졸업 3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朴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李禮植약대동창회장, 모교 千文宇학장, 朴萬基교수가 축사를 했으며, 토의 안건 시간을 통해 골프동호회, 바둑동호회 등을 조직·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서 朴회장은 李禮植회장에게 동창회 기금 1백만 원을 전달했으며, 모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千文宇학장에게 1천만 원을 전했다.

기념 사진촬영을 마친 참석자들은 2부 행사에서 조별 노래자랑, 기차놀이, 빙고게임 등을 즐기며 꾸민 상품 및 경품을 받았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동문들을 위해 서울교육문화회관 시설을 대관,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토목공학과

모교 방문의 날 개최

토목공학과동창회(회장 徐立圭)는 지난 11월 3일 모교 신공학관 대강당 및 제3식당에서 동문 및 가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졸업 30주년을 맞은 26회 동기회(회장 柳雄錫) 주관으로 시

작된 이날 행사에서 徐회장은 모교 재학생 마수정·박진홍(3년)양, 이현준(3년)·서정관·이윤식(4년)군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2백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행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26회 동기회에게 감사패 및 기념품을 전했다.

이날 특별히 6회 동기회가 모교 재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기금 1천만 원을 내놓았다.

문리대65동기회

홈페이지 관련 논의

문리대65동기회(회장 宋泰鎬)는 최근 역삼동 「샤브샤브」식당에서 운영위원회를 가졌다.

1965년 동승동에서 첫 대학 생활을 시작해 「동승클럽」이라고도 불리는 동기회는 이날 홈페이지(mulri65.com) 개설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

동승클럽은 지난 3월 창립총회를 가진 이후로 홈페이지·동기회기 제작, 경조사 참여 등 회원 파과 및 친목 교류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홈페이지 「동승클럽 추천 기사」 코너에서 동문들이 생각하는 전공 관련 유익한 정보, 실용적인 기사, 남기고 싶은 명귀, 해외의 새로운 시각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자료실」·「아트카페」·「자유게시판」·「회원 동정」·「이번 달 생일자」·「오늘 가입자」 등의 코너도 마련돼 있다. (表)

동 정

수 상

▲李雲植(61년 美大卒·강원대 명예교수·한국 조각가협회 고문)=지난 10월 19일 국립중앙극장에서 열린 「2002 문화의 날」 행사에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상(미술부문)을 수상함.

▲張潤宇(62년 美大卒·성신여대 박물관장)=지난 11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제7회 영랑문학대상을 수상했으며, 기념시선집 「形骸의 삶」(순수문학사刊)을 펴냄.

▲李炯均(64년 文理大卒·한국신문방송인클럽 회장·本會 副會長·本報 論說委員)=지난 11월 26일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가 주관한 제4회 담배소비자보호대상 시상식에서 매너상을 수상함.

▲郭贊浩(71년 新大院卒·민주평통 광진구협의회 사무국장)=지난 11월 12일 국제라이온스클럽 353-C지구로부터 공로패를 받음.

▲鄭忠始(76년 工大卒·오미아코리아 사장·本會 副會長)=지난 10월 2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02년 전기안전대회에서 전기안전관리 최우수업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함.

▲金石鉉(81년 醫大卒·모교 산

부인과학교실 교수)=지난 11월 22일 열린 대한불임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상을 받음.

▲趙泰玄(83년 大學院卒·중소기업청 서인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배재대 겸임교수)=지난 11월 16일 인천 제물포고동창회 길영희선생 추모사업회 주최 제8회 전국 남녀 중고교 대학 일반 길영희선생 추모문집 독후감 현상공모에서 일반부 대상을 수상함.

▲朴贊秀(85년 經營大卒·고려대 교수)=최근 고려대 경영대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에 의해 수여하는 Teaching Excellence Award를 수상함.

▲朴炳權(94년 大學院卒·마산대 교수)=지난 11월 5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는 전국대학교수법 경진대회에서 1등을 차지해, 11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함.

▲安鎬元(6기 EPHM·미국시인협회 회원)=최근 미국에 피포도문학회에서 주관하는 제6회 에피포도 문학상(수필부문) 본상을 수상함.

▲朴奉植(55년 文理大卒·모교 외교통과 명예교수)=지난 11월 7일 충청남도 논산에 건립된 금강대 초대 총장에 선임됨.

이동·선임

▲朴奉植(55년 文理大卒·모교 외교통과 명예교수)=지난 11월 7일 충청남도 논산에 건립된 금강대 초대 총장에 선임됨.

편집주간석

2002-111 VISION PLAN 보고

범례 : 목표/실적, 단위 : 억원, 부, %

항목	연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목적
1.기금 (동창회+관악회)		58 58.5	67 67.8	77 73.9	88 77.6	100 90	재정안정
2.동창회보 (발행·배포 부수)		8만3천 8만3천	8만7천 국내 8만 3천+미주7천	9만1천 9만3천	9만6천 9만 6천+ 온라인 8만	10만 9만 6천+ 온라인 8만	조직강화와 활성화
3.장학금 (재학생수 대비 지급률)		0.7 0.72	0.75 0.8	0.85 0.92	0.92 0.92	1.0 1.0	모교지원 증대

* 2002년도 기금실적은 연말기준 추정치

2002-111 VISION PLAN : 2002년말까지 기금 100억원, 회보발행 10만부, 장학금 지급률 1% 달성

우리 동창회는 1997년 중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2002-111 VISION PLAN을 수립,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의 달성을 위해 동문 여러분과 함께 매진해 왔습니다. 이에 목표년도인 올 세모를 맞으면서 그 추진실적과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다만 동창회의 재정안정과 회무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기금부문은 달성목표인 100억원에 미달하는 90억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좀 더 함께 노력했었다면...」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동안 본 계획의 추진에 음으로 양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주신 서울대 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劉永珠(61년 家政大卒·경희대 교수)=지난 11월 15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열린 한국가족학회 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선임됨.

▲沈相明(64년 法大卒·변호사)=지난 11월 9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됨.

▲金宗善(66년 醫大卒·모교 이비인후과학교실 교수)=최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17차 세계이비인후과학회(IFOS) 총회에서 실행이사에 선임됨.

▲金豊明(67년 醫大卒·명피부

과의원 원장)=지난 10월 18일 대한피부과학회 회장에 선임됨.

▲朴哲圭(67년 醫大卒·모교 성형외과학교실 교수)=지난 10월 22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아태평양두개안면외과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됨.

▲明魯昇(69년 法大卒·대전고검장)=지난 11월 15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됨.

▲金石華(78년 醫大卒·모교 성형외과학교실 교수)=지난 10월 22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제4차 아시아태평양두개안면외과학회 총회에서 이사에 선출됨.

행사·출간

▲白樂院(51년 醫大卒·인제학원 이사장·本會 顧問)=지난 11월 26일 인제대 서울캠퍼스 인당관에서 제4회 仁濟人性大賞 시상식을 개최함.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

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11월 29일 하얏트호텔 로터스룸에서 모교 생화학교실 박相哲(73년 醫大卒)교수를 초청, 「새 시대의 건강생활」을 주제로 제103회 정책토론회를 가짐.

▲金鍾星(54년 工大入·서울건축 대표)=2002년 베니스비엔날레 개최 제8회 국제건축전람회 한국 커미셔너로 9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전시된 한국파빌리온 전시 7개 건축작품을 선정, 전시기획, 전시설치, 개막 행사를 주관함.

▲李升煥(59년 法大卒·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지난 10월 13~17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GA-STECH 2002(세계가스기술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함.

▲朴煥堯(59년 師大卒·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지난 11월 1~7일 전주예술회관, 11~16일 충무로2가 후지포토살롱에서 교회기념 지리산 사진전을 가짐.

▲金載姬(60년 美大卒·한국여류화가회 회원)=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훈동 백송화랑에서 작품전을 가짐.

許文會·全武植·金承業·李賢九동문

제3회 한림원상 4개 분야 석권

지난 11월 21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한림과학기술원(원장 韓仁圭·56년 農大卒) 정기총회에서 제3회 한림원상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서 모교 농생

대 농학과 許文會(54년 農大卒)명예교수가 신설된 「농수산학상」을 수상했으며, 한국과학기술원 全武植(54년 文理大卒)명예석좌교수가 이학분야의 「청암과학상」을 받았다. 또 아주대 의대 뇌질환센터

金承業(60년 醫大卒)소장과 모교 공대 응용화학부 李賢九(62년 工大卒)교수가 각각 의학분야의 「GSI의학상」과 공학분야 「덕명공학상」을 수상했다.

일진그룹과 (주)진생사이언스의 후원으로 1999년 제정된 한림원상의 올해 수상은 모두 동문이 차지했다.

(鎬)



許文會



全武植



金承業



李賢九

▲**韓昌燮**(62년 文理大卒·前뉴욕지부 동창회장)=지난 10월 16일 일시 귀국하여 본회 林光洙회장을 예방하고 10월 24일 출국함.

▲**成善點**(62년 美大卒·홍윌회 회원)=지난 11월 7~17일 청담갤러리에서 「계절의 향기」라는 주제로 제13회 개인전을 가짐.

▲**徐丙詰**(63년 文理大卒·통일연구원장)=지난 11월 5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이란 주제로 2002 협동연구 학술회의를 가짐.

▲**南誌鉉**(64년 保大院卒·경산대 보건복지연구소장·한국보건교육협의회장)=지난 10월 31일 대구 파크호텔에서 「21세기 지방자치하에서의 보건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함.

▲**尹亨子**(65년 美大卒·대구가톨릭대 교수)=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구 대봉1동 갤러리 맥향에서 「정」을 주제로 네 번째 개인전을 가짐.

▲**韓在殷**(65년 醫大卒·시카고지부 동창회장)=지난 11월 18일 귀국하여 본會 林光洙회장을 예방하고 28일 출국함.

▲**南惠淑**(66년 美大卒·한국미협 회원)=지난 11월 13~19일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수채화 꽃모음으로 두 번째 개인전을 가짐.

▲**張萬基**(68년 經大院卒·인간개발연구원장)=지난 11월 21일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연변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총장을 초청, 「북방, 조선족의 인력개발과 한국산업체와의 호환성」을 주제로 제1275회 인간개발경영자연연구회를 개최함.

▲**林吉鎮**(69년 工大卒·미시건주립대 석좌교수·주거복지연대 이사장)=지난 11월 13일 은행회관에서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주택금융 정책제안 발표회를 개최함.

▲**咸鍾漢**(70년 農大卒·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이사장)=지난 11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제10차 청소년정책토론회를 개최함.

▲**張錦園**(71년 美大卒·덕성여대 교수)=지난 11월 1~12일 잠원동 갤러리 우덕에서 작품전을 가짐.

▲**朴沆律**(74년 美大卒·세종대

교수)=지난 11월 15~30일 인사동 갤러리인 데코에서 「새벽」「기다림」 등의 작품으로 제20회 개인전을 가짐.

▲**鄭康珠**(74년 師大卒·한국요가지도자연합회장)=지난 11월 2~3일 포 포인트 쉼라톤호텔과 크리스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인류공동체 생명사랑 나눔」을 주제로 제1회 한·일요가교류대회를 개최함.

▲**盧宰圭**(74년 醫大卒·모교 신경과학교실 교수·대한뇌졸중학회 회장)=지난 11월 28~29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1회 한·일뇌졸중학회를 개최함.

▲**朴明潤**(76년 保大院卒·한국파인트리클럽 총재·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冠岳會理事)=지난 11월 30일 클럽 창립 44주년을 맞아 강북청소년수련관 강당에서 기념 축하회 및 청소년여가장 장학금 전달식을 가짐.

▲**閔美蘭**(77년 音大卒·공주교대 교수·「창·흥 가야금 연주단」대표)=지난 11월 11일 대덕 과학문화센터 콘서트홀에서 제8회 창·흥 가야금연

모교 의대 柳仁鈞교수

미국립보건원 연구비 50만불 받아

모교 의대 정신과학교실 柳仁鈞(88년 醫大卒)교수(사진)가 미국 국립보건원(NIH)으로부터 모두 50만불의 임상학연구비를 받았다고 지난 11월 12일 밝혔다.

미국 국가기관에서 주는 임상학연구비를 받은 것은 국내 의학자로는 柳교수가 처음이다.

柳교수는 하버드 의대 정신과 페리 렌쇼교수와 공동 주연구자로, 모교 병원 임상학연구소를 통해 50만불의 연구비를 받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 국립과학재단 등 국가 기관에서 주는 임상연구비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 주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이들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액수와 상관없이 학문적 수준을 인정받는 영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變)

주단 정기연주회를 가짐.

▲**朴振**(78년 法大卒·국회의원)=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나라당 북한핵무기 대책특별위원회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조사활동을 실시했으며 11월 16일 한나라당 종로지구당사에서 「국회의원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가짐.

▲**鄭恩美**(85년 美大卒·홍익대 강사)=지난 11월 13~19일 인사동 공화랑에서 회화작품 30여 점을 출품, 「2002 Secret Garden - "Gardener"」를 주제로 개인전을 가짐.

▲**林賢洛**(87년 美大卒·동양화가)=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종로구 사간동 금호미술관에서 「나무들 서다」를 주제로 제5회 개인전을 가짐.

▲**崔烈坤**(6기 ACAD·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장)=지난 11월 11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초·중등 교원 16명에게 제1회 韓國師道大賞을 수여함.

▲**金相賢**(27기 ACAD·국회의원·ACAD동창회장)=지난 11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상현 거꾸로 서기, 바로 보기」출판기념회 겸 후원의 날 행사를 가짐.

新刊

■ 오해와 건강

—黃俊植 著



한국건강가족 실천운동본부 명예총재인 黃俊植(52년 醫大卒·우리의원 원장)동문이 오해, 증오심, 용서 등을 다스릴 수 있는 정신건강의 심리철학서를 내놓았다.

黃동문은 이 책에서 오해는 대개 감각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많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자기 내면 세계를 들여다봄으로써 정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나의학사刊·값13,000원)

■ 技術 모르는 CEO

한국경제 망친다

—姜明漢 著

삼성자동차 부사장과 고문을



역임한 姜明漢(59년 工大卒)동문이 기술의 역사와 기술축적의 방법, 엔지니어 육성 방법 등을 담았다.

姜동문은 이 책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이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한국기업들이 기술축적을 하지 못한다고 역설한다. 또 한국이 일류국가가 되는 것은 그들의 기술 이해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정우사刊·값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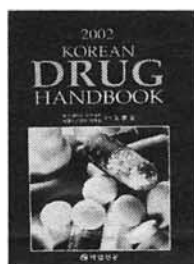
■ 2002 KOREAN

DRUG HANDBOOK

—盧煥成 著

울산대 의대 盧煥成(61년 藥大卒·서울아산병원 약제팀)교수가 국내 최초로 핸드북 타입의 약품해설집을 발간했다.

약품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 부작용, 금기 사항 등 의약품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



도록 했다. 이 책에 수록된 약품의 수는 성분명 기준으로 1천6백62종이며 제품수로는 9천4백62 품목으로 국내에서 시판중인 약품을 선별하여 수록했다. (약업신문刊·값20,000원)

■ 붉은 악마의 원조

치우천황(蚩尤天皇)

—高濬煥 著



국사찾기 협의회 부회장인 高濬煥(65년 法大卒·경기대 교수)동문이 월드컵 기간 동안 붉은 악마들의 응원기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치우천황의 실체를 역사적 기록을 통해 상세하게 정리했다.

高동문은 『치우천황이 4,600

여 년 전 배달국의 14대 천황으로, 백전백승의 신화로, 동양의 군신으로 추앙받은 역사적 인물』이라고 말한다.

붉은 악마 이야기, 치우천황의 일대기, 중국에서 본 치우천황, 월드컵 이후 치우천황의 부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메트로신문사刊·값10,000원)

■ 상생상멸(相生相滅)

—許信行 著



경제학자 출신으로 농림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許信行(66년 農大卒)사장이 회갑을 맞아 과거 40년간에 걸친 연구과정에서 체득한 상생상멸의 원리를 책으로 펴냈다.

이 책은 동양사상인 음양설과 서양의 변증법 이론은 물론, 電氣에 있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작용 및 소비자 세계의 쌍생성과 쌍소멸 현상까지를

총망라하여 하나의 보편적 원리로서 일반화시키고 있다. (범우사刊·값8,000원)

■ 디지털로 여는

e-편한 세상

—諸葛政雄 著



대 립 I&S 諸葛政雄(72년 商大卒·한 국 M&A 협회장)부회장이 그동안 신문 등 각종 매체에 기고했던 자신의 IT관련 칼럼을 한데 모아 단행본으로 엮어 출간했다.

諸葛부회장은 이 책에서 디지털이 세상에 몰고 온 변화와 디지털로 인해 앞으로 나타날 변화상을 설명하면서 디지털이 개인의 삶과 기업의 경영에 미친 영향과 그것이 궁극적으로 만들어낼 세상이 다른 아닌 더욱 편리한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열매출판사刊·값8,000원)

(정리=安興燮기자)

회 장 단

▲부회장 裴命仁=100만원

상임이사

▲金圭植 대학원동창회장=20만원
▲洪宗浩 ROTC동창회장=20만원

평생회비

▲고병걸(71년 工大卒)=20만원
▲공용성(79년 工大卒)=20만원
▲김명광(2기 AMPP)=20만원
▲김문기(84년 農大卒)=20만원
▲김승호(85년 大學院卒)=20만원
▲김재균(87년 大學院卒)=20만원
▲김창곤(87년 大學院卒)=20만원
▲김창석(92년 社會大卒)=20만원
▲김창섭(79년 人文大卒)=20만원
▲노광택(99년 農生大卒)=20만원
▲노혜건(96년 社會大卒)=20만원
▲류강선(79년 農大卒)=20만원
▲문찬국(77년 工大卒)=20만원
▲민병성(76년 工大卒)=20만원
▲박건호(63년 商大卒)=30만원
▲박명하(85년 師大卒)=20만원
▲박성수(80년 農大卒)=20만원
▲박용욱(69년 文理大卒)=20만원
▲박인근(63년 師大卒)=20만원
▲박해경(88년 人文大卒)=20만원
▲선우영(78년 法大卒)=20만원
▲성대경(81년 工大卒)=20만원
▲신대진(20기 AMP)=20만원
▲산봉길(78년 社會大卒)=20만원
▲신지현(57년 文理大卒)=20만원
▲신형철(85년 工大卒)=20만원
▲양우현(91년 自然大卒)=20만원
▲육영석(82년 工大卒)=20만원
▲우석주(55년 文理大卒)=20만원
▲유영상(71년 商大卒)=20만원
▲유해준(40기 AMP)=20만원
▲윤정식(1기 APC)=20만원
▲이광모(75년 工大卒)=20만원
▲이광희(79년 農大卒)=20만원
▲이국진(81년 經營大卒)=20만원
▲이기항(60년 商大卒)=20만원
▲이석목(70년 藥大卒)=20만원

회비납부 출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2002년 7월 31일~10월 10일·一般: 2002년 8월 5일~10월 8일〉

▲이종대(82년 工大卒)=20만원
▲이지선(98년 社會大卒)=20만원
▲이혁표(88년 醫大卒)=20만원
▲이희원(78년 齒大卒)=20만원
▲장성주(71년 文理大卒)=50만원
▲전동용(56년 獸醫大卒)=50만원
▲정해남(76년 法大卒)=20만원
▲정해수(1기 APC)=20만원
▲조문성(89년 自然大卒)=20만원
▲조범제(87년 法大卒)=20만원
▲조장호(65년 農大卒)=20만원
▲차기문(50기 ACAD)=20만원
▲채병호(60년 藥大入)=20만원
▲최호준(8기 EPHPM)=20만원
▲한홍승(60년 師大卒)=20만원
▲함영훈(97년 社會大卒)=20만원
▲호문룡(60년 師大卒)=20만원

이 사

◇社會科學大學

▲박찬욱⁷⁶ ▲양호승⁷⁸

◇自然科學大學

▲임춘호⁷⁷

◇經營大學

▲허일섭⁷⁷

◇工科學大學

▲강성안⁶² ▲강일규⁵⁴ ▲강현식⁷³
▲강호중⁷¹ ▲고원룡⁶⁸ ▲고원호⁴⁸
▲곽정석⁵⁴ ▲권순영⁵⁶ ▲김 철⁷⁷
▲김기협⁷¹ ▲김덕수⁵⁵ ▲김덕우⁸⁵
▲김무현⁶⁵ ▲김상수⁷⁷ ▲김석수⁷⁷
▲김석일⁷⁵ ▲김성배⁷² ▲김연식⁵¹
▲김연호⁷⁵ ▲김정근⁶¹ ▲김주용⁶³
▲김형백⁶¹ ▲문석형⁵⁴ ▲문수동⁷²
▲박금철⁵¹ ▲박동훈⁷⁰ ▲박상기⁶²
▲박상철⁶⁹ ▲박승재⁵⁵ ▲박정건⁷¹
▲박준형⁷⁴ ▲박태권⁵⁹ ▲백성하⁶⁶
▲서민석⁶⁶ ▲손 욱⁶⁷ ▲심창생⁶⁴
▲안동원⁶⁵ ▲엄익준⁷³ ▲오세철⁶⁰

▲유간성⁶⁴ ▲윤 문⁶⁷ ▲윤인섭⁷¹
▲윤종구⁵⁶ ▲이 관⁶³ ▲이 동⁶³
▲이강우⁶⁵ ▲이낙영⁷⁰ ▲이달우⁵³
▲이덕선⁶⁵ ▲이동선⁶¹ ▲이민화⁷⁶
▲이성렬⁵⁵ ▲이운형⁶⁹ ▲이정구⁶⁵
▲이종각⁴⁸ ▲이준의⁶⁴ ▲이창복⁶¹
▲이창호⁶¹ ▲이홍배⁶¹ ▲이희종⁵⁷
▲장동욱⁵⁴ ▲장인경⁷⁷ ▲전영우⁵⁵
▲정명식⁵⁵ ▲조규대⁵⁹ ▲조영래⁷¹
▲조창걸⁶³ ▲주재욱⁵⁸ ▲최창환⁶⁴
▲한철중⁵⁹ ▲함경호⁶⁰ ▲허길수⁶⁶
▲홍 경⁷¹ ▲홍성목⁵⁹ ▲홍성부⁶⁰
▲황일인⁶³ ▲황종구⁶²

◇農業生命科學大學

▲권오진⁵⁶ ▲김광호⁶⁵ ▲김시경⁵⁸
▲김영진⁶⁹ ▲김창호⁷⁰ ▲김진팔⁵²
▲김현구⁵⁹ ▲김홍기⁶⁵ ▲문태화⁷⁵
▲박재윤⁶⁰ ▲심재철⁶³ ▲안재숙⁵³
▲오훈일⁷¹ ▲이규희⁷⁰ ▲이득룡⁶⁶
▲이환수⁶³ ▲정윤환⁶² ▲조병찬⁷³

◇文理科學大學

▲강일규⁵⁷ ▲강지원⁷² ▲강현욱⁶¹
▲고 건⁶⁰ ▲구태회⁵⁰ ▲김경동⁵⁹
▲김경태⁶⁴ ▲김덕룡⁶¹ ▲김덕중⁷⁵
▲김성기⁶⁷ ▲김성열⁴⁸ ▲김우철⁷¹
▲김종하⁶⁴ ▲박기안⁷² ▲박병언⁶⁵
▲박호근⁷⁰ ▲신지현⁵⁷ ▲유양수⁶²
▲이광찬⁶² ▲이규환⁷⁰ ▲이부영⁶⁹
▲이상렬⁷⁵ ▲이상원⁷⁵ ▲이용화⁵⁷
▲이주천⁶³ ▲이현조⁵⁷ ▲임병석⁵⁸
▲정덕진⁶⁹ ▲조 은⁶⁹ ▲주진우⁷⁴
▲진홍순⁷⁴ ▲차홍봉⁶⁹ ▲최서영⁵⁸
▲한갑수⁵⁶ ▲홍남표⁷³ ▲홍치모⁵⁶

◇美術大學

▲김태욱⁶⁷ ▲민철홍⁵⁸ ▲정창섭⁶¹
▲황민자⁶⁷

◇法科學大學

▲강만수⁶⁹ ▲강영규⁵² ▲강원일⁶³
▲강진성⁶¹ ▲강현안⁷⁸ ▲금진호⁵⁸
▲김갑현⁴⁹ ▲김교창⁵⁹ ▲김도선⁶⁵

▲김동호⁶¹ ▲김두표⁷³ ▲김상갑⁷³
▲김상철⁵⁸ ▲김상훈⁶⁵ ▲김영채⁶⁵
▲김응재⁵² ▲김창복⁵⁵ ▲김창홍⁶⁰
▲김형선⁶² ▲김환식⁷¹ ▲남문우⁶¹
▲명동성⁷⁷ ▲명호근⁶⁵ ▲민수명⁶⁴
▲민형기⁷² ▲박상천⁶² ▲박석규⁶⁹
▲박일재⁵⁹ ▲박재경⁶¹ ▲박철언⁶⁵
▲박희태⁶¹ ▲변 욱⁶¹ ▲서삼영⁶⁹
▲송쌍중⁶⁷ ▲신갑철⁶⁰ ▲신동희⁷⁸
▲신중대⁷² ▲신현일⁸¹ ▲유 훈⁵⁴
▲유병건⁷⁰ ▲유재선⁶⁷ ▲유태현⁶⁴
▲윤교중⁷² ▲윤동민⁶⁷ ▲윤성태⁶⁵
▲윤재식⁶⁴ ▲윤호일⁶⁵ ▲이범주⁶⁶
▲이복영⁶⁶ ▲이세복⁶⁵ ▲이응웅⁶⁵
▲이인상⁶⁴ ▲이인재⁷² ▲이주영⁷⁴
▲이창수⁵⁷ ▲이한동⁵⁸ ▲이희규⁴⁹
▲임명순⁵⁴ ▲임상현⁶³ ▲임서빈⁵⁵
▲장병봉⁷² ▲장병규⁵⁷ ▲전봉호⁷⁹
▲정귀호⁶³ ▲정운직⁵⁷ ▲재갈우⁶⁹
▲조동주⁵⁷ ▲진철복⁵⁹ ▲최근선⁵⁸
▲최만립⁵⁴ ▲최연희⁶⁸ ▲추영일⁶⁵
▲한기선⁶⁰ ▲한준호⁷² ▲현병무⁶⁶
▲홍순우⁶⁹ ▲황규정⁶² ▲황병일⁷³
▲황인형⁶⁸ ▲황주명⁶² ▲황진호⁶⁶

◇師範大學

▲김관영⁵⁵ ▲김달수⁶⁹ ▲김병준⁷²
▲김준문⁵² ▲김찬근⁵⁸ ▲김학희⁷⁸
▲문상호⁵⁵ ▲민홍기⁶³ ▲박노빈⁶⁹
▲박봉배⁵³ ▲박수용⁵⁵ ▲박영오⁷⁰
▲박찬구⁶⁰ ▲박창수⁶⁵ ▲서해경⁷²
▲신현식⁶⁰ ▲심상학⁶⁷ ▲양금석⁵⁸
▲오영석⁶⁹ ▲유경근⁶² ▲윤덕중⁶⁸
▲임재홍⁷¹ ▲장경윤⁷⁸ ▲장기욱⁶¹
▲정광삼⁶³ ▲정문성⁷⁶ ▲최병주⁶⁰
▲최태상⁵⁷ ▲추암석⁷² ▲하순봉⁶⁴
▲한도연⁵³ ▲한진욱⁷⁹

◇商科學大學

▲강신중⁶⁴ ▲계준혁⁶⁰ ▲김범수⁶⁵
▲김성렬⁶³ ▲김재수⁶⁴ ▲김정태⁷⁰
▲김종서⁶³ ▲노창송⁶⁵ ▲문현상⁶⁵
▲박 간⁷⁶ ▲박 철⁶⁸ ▲박건호⁶³
▲박기종⁷⁶ ▲박봉흠⁷² ▲박상배⁷¹

▲박정식⁶³ ▲박홍기⁷⁴ ▲배정운⁶³
▲손희균⁵⁵ ▲송국현⁶² ▲신복영⁵⁹
▲신필렬⁷⁰ ▲신희철⁶³ ▲안웅식⁶⁶
▲원호출⁵⁶ ▲유재환⁷¹ ▲이병욱⁷⁴
▲이수빈⁶¹ ▲이수익⁶⁵ ▲이연재⁶⁶
▲이용성⁶⁰ ▲이전배⁷³ ▲이한섭⁶⁰
▲이현락⁶⁶ ▲이형직⁷¹ ▲임진택⁷³
▲장종록⁶³ ▲장종의⁶⁴ ▲전영수⁵⁵
▲전철환⁶¹ ▲정동수⁷⁰ ▲정주호⁷²
▲정희영⁶⁵ ▲지치본⁶² ▲최종찬⁷²
▲허도행⁶⁹ ▲황창학⁵⁹

◇生活科學大學

▲박영숙⁷² ▲우경자⁶⁵ ▲이인자⁵⁹
▲조명희⁷¹

◇獸醫科學大學

▲김동훈⁶⁰ ▲김선중⁶⁶ ▲김재원⁶⁵
▲김종영⁸² ▲나기식⁵⁸ ▲석세조⁵⁴
▲신현일⁶¹ ▲여중원⁶⁹ ▲오영유⁵⁷
▲이강남⁷⁴ ▲이상민⁵⁶ ▲전동룡⁵⁶
▲조병왕⁶⁵ ▲조영웅⁶⁷ ▲조후익⁶³
▲최성호⁶¹ ▲최정철⁶⁹ ▲최찬영⁷³

◇藥科學大學

▲고대승⁵⁸ ▲권경곤⁶⁰ ▲김상열⁴⁸
▲김태근⁷⁵ ▲김태현⁷⁵ ▲손인자⁷³
▲송희성⁶⁴ ▲오연준⁶⁰ ▲이동원⁷¹
▲이석목⁷⁰ ▲장학순⁵¹ ▲정미화⁶³
▲정환수⁵⁵ ▲진 강⁶⁰ ▲최양웅⁶⁵

◇音樂大學

▲백원정⁶⁹ ▲정은숙⁷⁴ ▲조삼진⁶²

◇醫科學大學

▲기의익⁴⁸ ▲김광원⁷² ▲김광희⁶¹
▲김원석⁶⁵ ▲김종환⁵⁷ ▲문명상⁵⁷
▲박문희⁵⁶ ▲박영태⁷⁶ ▲박인서⁶⁰
▲박정범⁶⁹ ▲서경필⁵⁷ ▲송창섭⁵⁹
▲신현호⁷⁹ ▲유세화⁷¹ ▲이규환⁶⁰
▲이대규⁵³ ▲이원표⁷⁸ ▲이정삼⁶⁶
▲정종환⁶² ▲조강희⁶⁵ ▲조영희⁶²
▲최관흠⁵⁸ ▲최세준⁵⁹ ▲한민청⁵⁹
▲한병채⁶⁴ ▲한정철⁶² ▲한홍무⁶²
▲홍경표⁷⁹

◇齒科學大學

▲강근수⁷⁰ ▲강대준⁷² ▲구창서⁶⁴
▲김광빈⁶⁵ ▲김기국⁷⁰ ▲김원규⁶⁰

▲김정균⁶⁵ ▲김종철⁶⁶ ▲김종훈⁷³
▲남수현⁷⁷ ▲문복강⁶⁸ ▲박재중⁵⁵
▲변영남⁶⁹ ▲손광웅⁶⁶ ▲송영호⁶¹
▲신영균⁵⁵ ▲양일수⁷⁹ ▲이석형⁶²
▲이순규⁷⁵ ▲이형규⁶¹ ▲임채균⁵⁷
▲임태홍⁵⁵ ▲장계순⁷³ ▲전영섭⁶⁶
▲조성복⁵⁹ ▲주낙림⁶⁰ ▲한동환⁵⁸
▲황규선⁶⁰ ▲황오현⁵⁶

◇經營大學院

▲김한준⁹¹ ▲이운재⁷² ▲이철우⁷⁰
▲정일채⁶⁹

◇保健大學院

▲권혁한⁷⁷ ▲김남주⁶⁸ ▲김종오⁸²
▲김초강⁷² ▲이시영⁷⁰ ▲조유정⁶⁹
▲한홍을⁶⁹

◇司法大學院

▲강윤호⁷⁰ ▲안석태⁶⁵

◇新聞大學院

▲김태문⁷³

◇行政大學院

▲권기성⁷⁹ ▲김광림⁸⁰ ▲김상영⁶⁵
▲반금환⁷⁰ ▲서재근⁶⁴ ▲신순우⁷⁴
▲최계순⁶⁵ ▲현경병⁶⁷

◇최고경영자과정

▲김진재¹⁶ ▲오장섭²⁷

◇국가정책과정

▲강창희²² ▲박관용¹⁸

일 반

◇人文大學

▲강현철⁷⁹ ▲고광모⁷⁹ ▲김광현⁸²
▲김선아⁹⁷ ▲김영래⁹⁷ ▲김종원⁸³
▲노지원⁹⁷ ▲박순문⁸⁰ ▲박철준⁸⁶
▲박해일⁹⁸ ▲박현철⁶⁶ ▲박혜경⁸⁸
▲송희영⁷⁸ ▲신인수⁸⁵ ▲윤승용⁹⁰
▲이기학⁸⁷ ▲이봉원⁸⁰ ▲이상인⁸⁷
▲이장호⁸⁶ ▲이정복⁹⁰ ▲임성재⁹⁵
▲임준규⁸⁹ ▲정성문⁸⁹ ▲조영식⁹²
▲최동규⁷⁷ ▲최승환⁶⁰ ▲최정선⁸⁸
▲허나운⁹⁰ ▲현무환⁸¹

◇社會科學大學

▲강병철¹⁰ ▲권익승⁸⁷ ▲구영삼⁹⁰
▲김 충⁸⁹ ▲김광웅⁹⁵ ▲김남일⁷⁹
▲김대영⁸⁸ ▲김덕파⁹⁷ ▲김동식⁹²
▲김명언⁷⁷ ▲김병준⁹³ ▲김승호⁸⁶
▲김연지⁹⁰ ▲김용환⁸² ▲김유동⁸⁸
▲김을진⁸⁴ ▲김재형⁸³ ▲김정식⁹⁴
▲김주영⁹⁷ ▲김진덕⁹⁵ ▲김창석⁹²
▲노기선⁹² ▲노혜건⁹⁶ ▲류호영⁸⁰
▲문상현⁹² ▲문호후⁸³ ▲박 찬⁷⁹
▲박관표⁸⁷ ▲박자영⁸⁸ ▲설방환⁸⁷
▲성기흥⁹⁰ ▲송기균⁸² ▲송성권⁸⁵
▲송태운⁸² ▲신기덕⁷⁸ ▲신봉길⁷⁸
▲신성수⁸⁶ ▲신용인⁹³ ▲신택호⁹⁰
▲심일혁⁹³ ▲안현실⁸⁵ ▲오진규⁸²
▲오현규⁹¹ ▲우영수⁸⁷ ▲유두선⁸⁷
▲유준상⁹⁶ ▲육강화⁷⁸ ▲윤종혁⁸⁸
▲은기수⁸⁵ ▲은호상⁸⁹ ▲이 기⁷⁸
▲이근태⁸⁹ ▲이동규⁹⁰ ▲이동한⁸¹
▲이병성⁹³ ▲이성훈⁹⁶ ▲이영조⁷⁷
▲이윤섭⁸⁹ ▲이장훈⁸⁰ ▲이재협⁸⁸
▲이정섭⁹⁷ ▲이정현⁹⁶ ▲이준혁⁹³
▲이지수⁸⁷ ▲이진녕⁸² ▲임성주⁸⁷
▲임재금⁹⁸ ▲전주현⁹⁴ ▲정병석⁷⁶
▲정양호⁸⁵ ▲정연석⁸⁹ ▲조권중⁸⁶

▲조병철⁷⁷ ▲조상현⁸⁸ ▲조석주⁹⁵
▲조윤선⁸⁸ ▲조창현⁸¹ ▲조현진⁸⁹
▲주 현⁸⁴ ▲진형준⁸⁵ ▲최영환⁸⁸
▲최용석⁸⁴ ▲최용제⁸⁶ ▲최진환⁷⁶
▲홍석철¹⁰ ▲황윤환⁹⁷

◇自然科學大學

▲김병수⁷⁸ ▲김석진⁹⁴ ▲김우식⁸⁹
▲김정식¹⁰ ▲김호신⁸³ ▲남호윤⁷⁸
▲명백훈⁸⁶ ▲민영철⁷⁸ ▲박윤경⁸⁷
▲송창근⁸¹ ▲심준석⁹⁵ ▲양우현⁹¹
▲유영만⁸⁸ ▲이광준⁹¹ ▲이성진⁸⁷
▲이성호⁹⁸ ▲이순걸⁷⁹ ▲이승혁⁹⁹
▲이준영⁸⁵ ▲이현주⁸⁹ ▲이흥재⁸³
▲장경우⁸² ▲조문성⁸⁹ ▲최진혁⁷⁸
▲최철호⁹³ ▲함운경⁹¹ ▲현동우⁷⁶

◇看護大學

▲김명숙⁶⁵ ▲김정희⁸⁹ ▲김효신⁸⁶
▲박인숙⁸¹ ▲손명숙⁹¹ ▲신계영⁸⁴
▲오은경⁸² ▲유문자⁶⁸ ▲유영희⁷⁹
▲이선옥⁷³ ▲조결자⁶⁶ ▲최경화⁷⁹
▲최미혜⁹⁰

◇經營大學

▲강상완⁹⁵ ▲김경진⁸¹ ▲김근수⁸¹
▲김기윤⁹⁰ ▲김동배⁸⁹ ▲김상근⁹⁴
▲김정아⁹⁵ ▲김정환⁷⁸ ▲김진두⁸³
▲김학재⁹⁸ ▲김홍식⁹⁴ ▲민상기⁹³
▲박두원⁹⁶ ▲박병환⁹⁴ ▲박철수⁹¹
▲백주한⁹⁹ ▲변재진⁷⁶ ▲성태호⁹⁹
▲송영승⁹⁸ ▲신승철⁹⁵ ▲신재욱⁹⁷
▲유인식⁹⁶ ▲윤철수⁷⁶ ▲이동훈⁹²
▲이승호⁹⁴ ▲이유재⁸² ▲이현우⁸⁸
▲전성률⁸⁶ ▲정세찬⁸⁷ ▲정연식⁸²
▲최준영⁸⁹ ▲한영철⁹⁰ ▲홍기택⁷⁸
▲홍정균⁹³

◇工科大學

▲강남식⁷⁷ ▲강병희⁶¹ ▲강신구⁵⁷
▲강윤호⁹⁰ ▲고창현⁷² ▲고형석⁸⁹
▲공용성⁷⁹ ▲곽순섭⁷² ▲곽한우⁷⁷
▲곽호상⁸⁶ ▲구본현⁷⁹ ▲구양현⁸³
▲구장희⁶⁵ ▲구정모⁹⁷ ▲국전표⁶⁶
▲권기수⁷³ ▲권숙문⁵² ▲권용수⁸³
▲권정광⁷² ▲김 철⁶² ▲김 훈⁷⁵
▲김갑순⁵⁶ ▲김강수⁹² ▲김경렬⁵⁵
▲김경진⁶⁵ ▲김광수⁷⁴ ▲김광열⁸³
▲김광택⁶⁴ ▲김규은⁵² ▲김기웅⁶⁵
▲김대익⁷⁸ ▲김동규⁶⁴ ▲김동인⁶⁶
▲김동주⁵⁷ ▲김병환⁷³ ▲김문상⁸²
▲김범준⁹⁵ ▲김병재⁷³ ▲김상갑⁸⁵
▲김상범⁸⁶ ▲김선재⁸⁹ ▲김수홍⁸⁹
▲김양성⁸² ▲김영준⁶⁵ ▲김영호⁸²
▲김용근⁶⁴ ▲김유경⁷² ▲김유희⁶¹
▲김익수⁵⁶ ▲김인규⁸⁹ ▲김인용⁷⁸
▲김재수⁹⁵ ▲김재택⁶¹ ▲김재환⁹³
▲김정길⁶³ ▲김정호⁸⁵ ▲김종민⁷⁸
▲김종필⁷² ▲김종호⁸⁷ ▲김주택⁷¹
▲김진경⁷⁵ ▲김진국⁷¹ ▲김진무⁶⁹
▲김전환⁷² ▲김철성⁷⁷ ▲김춘식⁶¹
▲김태문⁵⁹ ▲김태현⁶⁴ ▲김태훈⁷⁶
▲김현국⁹⁵ ▲김형민⁸¹ ▲김형태⁶¹
▲김흥근⁸⁰ ▲김희봉⁸⁸ ▲김희창⁶²
▲남광문⁶⁵ ▲남궁은⁷³ ▲남시도⁶³
▲도동섭⁵⁹ ▲류행수⁹⁷ ▲류현욱⁹⁹
▲문상선⁷⁵ ▲문성진⁹¹ ▲문정호⁷⁶
▲민철기⁷³ ▲박경배⁹² ▲박경종⁶⁷
▲박경현⁹⁶ ▲박광호⁷⁷ ▲박기석⁶⁵
▲박기선⁶⁰ ▲박노선⁷⁹ ▲박노철⁷⁸
▲박도성⁷⁸ ▲박동재⁵⁵ ▲박민우⁷⁴
▲박순길⁷⁹ ▲박순준⁶⁰ ▲박시만⁷⁴
▲박연미⁹⁹ ▲박영택⁷⁹ ▲박옥구⁷³
▲박의승⁷⁷ ▲박재서⁷² ▲박재현⁸⁶
▲박종관⁸³ ▲박종준⁷³ ▲박철현⁷³

▲박희영⁹⁵ ▲배상기⁷³ ▲백봉근⁵⁴
▲백성하⁶⁴ ▲백원규⁵⁶ ▲백학기⁵⁶
▲서균철⁷⁸ ▲서동운⁴⁹ ▲서재영⁷⁶
▲서정선⁸¹ ▲서주원⁹¹ ▲선우식⁸⁰
▲성기윤⁸⁹ ▲성낙준⁵⁷ ▲송명철⁶⁹
▲송재준⁷⁰ ▲송재협⁷³ ▲송준영⁹⁸
▲송준환⁶⁶ ▲신건학⁶¹ ▲신승철⁷⁴
▲신재홍⁸¹ ▲신중호⁷⁶ ▲신호승⁹⁸
▲심규승⁸⁴ ▲심문호⁸⁵ ▲안봉규⁷⁰
▲안주수⁷⁴ ▲안준영⁵⁶ ▲양만영⁶⁷
▲양석희⁶⁶ ▲양용규⁸⁶ ▲양우현⁸²
▲엄채영⁶⁰ ▲여인갑⁶⁸ ▲오상희⁹²
▲오종혁⁹⁴ ▲오창국⁹⁸ ▲오천택⁶¹
▲오태규⁷⁸ ▲온기현⁷⁷ ▲우세훈⁷⁹
▲위관식⁷⁹ ▲유승용⁶⁴ ▲유승호⁸⁷
▲유심덕⁶⁵ ▲유완상⁷¹ ▲유재기⁷⁹
▲유정근⁵⁷ ▲유재춘⁶⁴ ▲윤재홍⁶⁵
▲윤정복⁶⁷ ▲이 석⁵² ▲이경기⁵⁹
▲이경종⁷⁹ ▲이계호⁵⁸ ▲이광복⁷¹
▲이광우⁶⁴ ▲이규준⁸⁴ ▲이근욱⁵⁸
▲이남순⁷⁶ ▲이동수⁶⁶ ▲이동진⁷⁷
▲이병수⁸¹ ▲이봉오⁶² ▲이상래⁸⁸
▲이상배⁶¹ ▲이상영⁷⁷ ▲이상운⁷⁶
▲이상준⁸⁰ ▲이상춘⁷⁶ ▲이선환⁵⁶
▲이성래⁷⁷ ▲이성범⁸⁷ ▲이승동⁶⁰
▲이승욱⁶² ▲이승훈⁸⁴ ▲이영근⁷⁶
▲이영욱⁷⁷ ▲이영재⁷² ▲이영철⁶⁴
▲이원호⁷⁸ ▲이윤철⁸⁶ ▲이인태⁵⁷
▲이재선⁷³ ▲이재형⁷¹ ▲이정균⁵⁵
▲이정우⁶⁹ ▲이정일⁶⁵ ▲이종규⁶¹
▲이종대⁸² ▲이종명⁷⁶ ▲이준식⁷⁶
▲이진기⁵⁴ ▲이진홍⁷¹ ▲이창석⁹⁶
▲이춘성⁷⁵ ▲이충기⁷⁴ ▲이충훈⁸⁵
▲이필한⁷³ ▲이해경⁵³ ▲이현욱⁹³
▲이형목⁶³ ▲이흥근⁶⁹ ▲이효진⁸³
▲이희발⁸⁰ ▲이희웅⁷⁷ ▲이희철⁹⁵
▲임대우⁷³ ▲임석균⁶⁴ ▲임성빈⁶⁸
▲임채경⁷⁵ ▲임태균⁹⁵ ▲장경환⁵⁷
▲장무환⁹³ ▲장문현⁶³ ▲장응재⁶⁸
▲장준근⁹⁰ ▲장준호⁶⁷ ▲장학현⁸⁶
▲장한익⁷⁷ ▲장효성⁶⁶ ▲전몽각⁵⁹
▲전병환⁸⁸ ▲전윤호⁸² ▲전재각⁶⁶
▲전재열⁸¹ ▲전진환⁹⁴ ▲전효택⁷¹
▲정건식⁵⁹ ▲정국환⁸¹ ▲정기호⁸⁶
▲정길모⁶⁵ ▲정대중⁸⁸ ▲정동철⁹²
▲정범식⁷¹ ▲정산용⁷³ ▲정수민⁷⁴
▲정연근⁶⁰ ▲정영식⁶¹ ▲정우영⁸⁴
▲정원배⁶⁶ ▲정장훈⁷¹ ▲정중기⁸²
▲정현일⁶⁴ ▲조건우⁸¹ ▲조광선⁶⁶
▲조남희⁸¹ ▲조대승⁸⁵ ▲조동기⁹⁷
▲조동석⁷³ ▲조두현⁸⁰ ▲조민경⁹⁹
▲조장래⁷³ ▲주현수⁸⁹ ▲지만식⁶⁵
▲지인상⁸¹ ▲진명진⁶⁷ ▲진인섭⁷⁹
▲진종원⁷³ ▲차근오⁸³ ▲채경민⁸²
▲채규남⁵⁴ ▲최 인⁷³ ▲최경진⁷³
▲최광열⁶⁷ ▲최도영⁸⁷ ▲최병삼⁷²
▲최병홍⁸² ▲최상기⁷⁸ ▲최용훈⁹⁷
▲최진엽⁸³ ▲편영준⁸¹ ▲한강수⁷⁸
▲한관수⁷⁶ ▲한규택⁷⁷ ▲한순욱⁸⁷
▲함대영⁷¹ ▲홍광표⁶³ ▲홍대형⁷⁷
▲홍성길⁸¹ ▲홍성표⁷¹ ▲홍영락⁸⁴
▲황규백⁹⁷ ▲황선욱⁵⁵ ▲황순택⁷⁶
▲황익남⁶⁶ ▲황일수⁸³ ▲황희연⁷⁹

◇農業生命科學大學

▲강우상⁷¹ ▲강정모⁶⁹ ▲곽 현⁹⁶
▲곽원석⁷⁵ ▲관상대⁶⁸ ▲관순국⁶⁴
▲관순희⁹³ ▲김 정⁶⁵ ▲김갑근⁷²
▲김경수⁵⁵ ▲김경수⁹⁵ ▲김관진⁷³
▲김광진⁹⁶ ▲김근영⁶⁹ ▲김기병⁸⁷
▲김문기⁸⁴ ▲김성수⁶⁷ ▲김수현⁹⁸
▲김영규⁵⁵ ▲김용호⁹⁴ ▲김우석⁶⁸
▲김유용⁸⁷ ▲김인기⁶³ ▲김재권⁵²
▲김재운⁷⁵ ▲김정교⁵³ ▲김정규⁷⁶
▲김정빈⁶⁵ ▲김종성⁶⁰ ▲김진오⁷³

▲김창성⁸⁸ ▲김철수⁶⁷ ▲김한석⁷¹
▲김호탁⁶⁴ ▲김환수⁸⁸ ▲남상일⁷⁸
▲노광택⁹⁹ ▲노필규⁶⁵ ▲맹수철⁸⁸
▲맹준하⁷⁰ ▲문용식⁶⁶ ▲박 용⁶⁵
▲박경호⁷² ▲박기수⁷⁸ ▲박동선⁶⁴
▲박명규⁶⁷ ▲박상현⁷⁴ ▲박석기⁸³
▲박성수⁸⁰ ▲박영숙⁶⁹ ▲박인숙⁸⁸
▲박재형⁵⁶ ▲박정덕⁵⁹ ▲박정부⁶⁴
▲박종주⁷⁰ ▲박종효⁶⁶ ▲박준걸⁷⁸
▲방봉수⁶⁸ ▲백구현⁶¹ ▲변양석⁸³
▲석준호⁶⁰ ▲성수일⁷⁰ ▲성용훈⁶⁶
▲성현경⁸⁴ ▲손환규⁶⁸ ▲송원중⁸⁸
▲송태희⁶³ ▲송현갑⁶⁵ ▲신대섭⁸⁰
▲신덕현⁷¹ ▲심덕로⁷⁰ ▲심창로⁵⁸
▲양호석⁶³ ▲오길현⁸⁰ ▲오달희⁶⁵
▲오세원⁶¹ ▲오세훈⁶⁵ ▲오정행⁶⁴
▲오중환⁶⁰ ▲우기원⁶⁰ ▲우정식⁵³
▲유경희⁸⁸ ▲유기성⁶⁰ ▲유선준⁹⁴
▲유이중⁷⁸ ▲유호섭⁸⁰ ▲윤동면⁶⁹
▲윤용기⁶³ ▲이강민⁹⁸ ▲이군자⁶⁷
▲이규석⁷⁷ ▲이규형⁶⁴ ▲이근수⁵⁸
▲이기복⁵⁷ ▲이기창⁵⁵ ▲이기환⁶¹
▲이명동⁵⁹ ▲이문재⁶⁶ ▲이범일⁶⁶
▲이병하⁶⁰ ▲이상훈⁶³ ▲이석기⁶⁷
▲이성우⁷³ ▲이성진⁶⁵ ▲이수장⁶⁴
▲이수찬⁸⁶ ▲이연근⁶⁴ ▲이우종⁸⁵
▲이을용⁶⁷ ▲이재양⁶⁵ ▲이재연⁶⁵
▲이재완⁷³ ▲이정로⁶⁶ ▲이종호⁵⁶
▲이종희⁹⁰ ▲이중기⁶⁰ ▲이지득⁶⁷
▲이창규⁸⁹ ▲이학재⁸⁸ ▲이한강⁷³
▲이형주⁷⁰ ▲인효석⁸⁷ ▲임용섭⁹⁴
▲임원순⁷⁷ ▲전성익⁵⁹ ▲전승완⁸⁸
▲전재성⁷⁹ ▲전지영⁸⁷ ▲정금희⁸⁵
▲정병현⁶⁶ ▲정승영⁸⁸ ▲정영관⁶²
▲정용화⁹⁰ ▲정인무⁶⁷ ▲정종수⁶⁴
▲정현석⁷⁰ ▲채성목⁸⁵ ▲천기길⁶¹
▲최무재⁵⁹ ▲최송용⁶⁵ ▲최승주⁶⁴
▲최영호⁶⁹ ▲최예환⁶⁵ ▲최윤용⁶³
▲최주건⁵⁹ ▲최치영⁸⁸ ▲최태동⁷⁵
▲하재규⁵⁷ ▲하철경⁶¹ ▲한용식⁸⁸
▲한준호⁶⁸ ▲한태호⁸⁷ ▲허 홍⁵⁸
▲허재기⁶⁷ ▲현의승⁶⁵ ▲황연수⁸⁰
▲황영자⁶³ ▲황용진⁶¹ ▲황인규⁸⁴

◇文理科大學

▲강길운⁵⁴ ▲고문환⁶⁶ ▲고일남⁶⁰
▲공종원⁶² ▲권영필⁶⁵ ▲권혁웅⁶³
▲기우탁⁶³ ▲김남기⁷² ▲김덕렬⁶⁵
▲김동선⁶⁴ ▲김동훈⁶⁴ ▲김득중⁶⁵
▲김병연⁵⁶ ▲김병호⁷⁰ ▲김부남⁷⁰
▲김성진⁵⁹ ▲김수년⁵⁷ ▲김영식⁸⁸
▲김영인⁶⁸ ▲김용달⁶² ▲김유석⁵⁵
▲김유진⁵¹ ▲김인자⁶³ ▲김재수⁶⁸
▲김종구⁵⁷ ▲김철용⁵⁹ ▲김태수⁶⁴
▲김판우⁴⁹ ▲김학주⁵⁶ ▲김효근⁶⁷
▲나종일⁵² ▲노계원⁶⁴ ▲맹선재⁶⁶
▲맹중호⁷⁰ ▲민동근⁵⁰ ▲박순자⁶⁶
▲박원원⁷⁴ ▲박옥순⁶³ ▲박옥준⁵²
▲배광선⁷⁰ ▲배성근⁶⁰ ▲백완기⁵⁹
▲백종현⁷⁰ ▲변수일⁶³ ▲서군강⁶⁵
▲서남수⁷⁵ ▲서병철⁶³ ▲성낙현⁷³
▲손보기⁴⁷ ▲손창조⁷⁵ ▲송소영⁷²
▲신건수⁷⁵ ▲신섭중⁵⁵ ▲신준희⁶¹
▲신현규⁵¹ ▲양완모⁷⁴ ▲염정임⁶⁷
▲오현승⁶⁹ ▲온준철⁶⁸ ▲온종렬⁷²
▲왕종일⁶⁶ ▲우석주⁵⁵ ▲우영의⁶³
▲유승남⁶⁵ ▲유승현⁷³ ▲유종하⁵⁹
▲유형진⁶³ ▲윤종욱⁶⁰ ▲윤종혁⁶⁷
▲이 용⁶⁶ ▲이금동⁶⁵ ▲이동훈⁷⁵
▲이상근⁶¹ ▲이상철⁷³ ▲이순자⁷¹
▲이승부⁶⁶ ▲이용일⁷³ ▲이우석⁶⁷
▲이우용⁶⁸ ▲이원근⁷³ ▲이인석⁶⁵
▲이한국⁵⁵ ▲장동철⁶⁸ ▲장석환⁶⁶
▲전무배⁵⁶ ▲전병학⁶⁸ ▲전영애⁷³

▲전우성⁵⁸ ▲전인영⁶⁵ ▲전해중⁴⁷
▲정경재⁶⁸ ▲정상모⁷⁴ ▲정재봉⁶⁴
▲조순자⁵⁷ ▲조장태⁶⁴ ▲조중형⁵⁸
▲주영태⁶⁴ ▲주은선⁶³ ▲천상덕⁷⁵
▲최 진⁶⁰ ▲최경영⁷⁴ ▲최병덕⁶⁰
▲최승언⁶⁵ ▲최완식⁵⁸ ▲최정도⁶⁶
▲최평철⁷⁰ ▲한운사⁴⁷ ▲홍순길⁶⁵
▲황상연⁷⁴ ▲황용수⁶⁰

◇美術大學

▲강호성⁹¹ ▲권기윤⁸¹ ▲권대훈⁹⁶
▲김재윤⁶¹ ▲김재훈⁸⁶ ▲김학두⁵¹
▲김학재⁸⁷ ▲김혜숙⁶¹ ▲김효순⁸⁵
▲남 철⁶² ▲문혜영⁹⁸ ▲성기완⁸⁹
▲손희옥⁷² ▲신승준⁹³ ▲신영삼⁶²
▲안재후⁵⁶ ▲오수환⁷² ▲우계숙⁷⁶
▲유 황⁶⁴ ▲이강소⁶⁵ ▲이기는⁸⁶
▲이만희⁶⁶ ▲이상복⁷⁷ ▲이승미¹⁰
▲이원자⁶³ ▲이정숙⁶⁹ ▲이주대⁵⁷
▲이철주⁶⁷ ▲임상진⁶⁰ ▲전뢰진⁴⁹
▲전민숙⁷⁸ ▲전상철⁸⁵ ▲정영섭⁶⁰
▲정희숙⁹⁸ ▲정희연⁸⁶ ▲조희영⁶⁸
▲진광산⁶⁶ ▲채승진⁸⁵ ▲채정은⁸⁵
▲최국병⁶⁶ ▲최선주⁷³ ▲하수경⁷⁴

◇法科大學

▲강성명⁹⁰ ▲강성목⁵⁶

▲김시곤⁶⁷ ▲김익환⁷¹ ▲김영국⁷¹
▲김용석⁵⁸ ▲김용일⁵⁹ ▲김유경⁷⁰
▲김은숙⁸¹ ▲김은재⁴⁵ ▲김인표³⁸
▲김재성⁸⁶ ▲김재현⁹⁵ ▲김정란⁶³
▲김종규⁶⁶ ▲김종민⁹⁸ ▲김진경⁸⁷
▲김택현⁸³ ▲김하진⁶¹ ▲김학권⁶¹
▲김혜우⁶⁹ ▲김홍동⁷⁷ ▲김희수⁷⁵
▲노진영⁹⁹ ▲도회권¹⁰ ▲문용호⁶⁹
▲문창덕⁴² ▲박노화⁵⁴ ▲박명숙⁸⁸
▲박명하⁸⁵ ▲박수환⁷⁰ ▲박영희⁶⁸
▲박용범⁹² ▲박정혜⁸² ▲박종대⁵⁶
▲박천배⁷⁸ ▲방영선⁷⁹ ▲변희준⁶²
▲서택준⁷⁶ ▲성현⁷³ ▲성기웅⁸⁰
▲성기훈⁷⁵ ▲손성준⁷¹ ▲손영복⁷⁹
▲송예찬⁷⁶ ▲송준영⁴⁰ ▲송혜자⁶⁰
▲신복환⁶¹ ▲신영준⁸⁸ ▲신용국⁵⁹
▲신용수⁵⁷ ▲심영자⁶³ ▲안종혁⁸¹
▲안희익⁵⁸ ▲양태일⁶³ ▲오성환⁷⁷
▲오웅택⁶² ▲왕세균⁷² ▲우근룡⁶⁹
▲유남두⁶¹ ▲유병석⁸⁴ ▲유영렬⁶⁰
▲유진영⁷⁴ ▲유천근⁶⁴ ▲윤기영⁷⁸
▲윤덕홍⁶⁹ ▲윤명희⁶⁵ ▲윤성렬⁶⁴
▲이강범⁶¹ ▲이굴섭⁸² ▲이기방⁶³
▲이기준⁷¹ ▲이달호⁵⁰ ▲이민부⁷⁸
▲이병호⁷⁴ ▲이석주⁶⁰ ▲이성진⁶⁷
▲이시훈⁶¹ ▲이신우⁶² ▲이연호⁵¹
▲이영애⁷¹ ▲이영자⁶⁰ ▲이우범⁶¹
▲이우식⁶⁰ ▲이일철⁵⁷ ▲이재관⁷¹
▲이재근⁴³ ▲이재혁⁷⁰ ▲이정록⁷⁴
▲이정욱⁶² ▲이현주⁸⁷ ▲이호준⁶⁴
▲이흥로⁷⁴ ▲이희상⁶⁰ ▲이희숙⁶⁵
▲임대택⁶⁴ ▲임억규⁵⁷ ▲임효숙⁸⁵
▲장완배⁶⁶ ▲장주근⁵² ▲전규동⁷²
▲전영란⁸⁹ ▲정규범⁷⁷ ▲정대영⁵⁷
▲정명수⁷³ ▲정복래⁵⁸ ▲정부길⁶⁴
▲정응근⁶⁷ ▲정진대⁷⁶ ▲정태환⁷⁴
▲제경희⁸⁹ ▲조규태⁵⁵ ▲조기호⁵⁸
▲조동규⁵⁸ ▲조숙상⁷¹ ▲조용선⁶⁴
▲조정기⁶⁷ ▲조현철⁹⁸ ▲진영일⁶⁵
▲진위교⁵⁸ ▲최계숙⁵⁶ ▲최나춘⁶³
▲최예종⁶⁹ ▲최요섭⁷⁸ ▲최익규⁵⁶
▲최종진⁶⁸ ▲최혜선⁶⁷ ▲한기선⁷⁸
▲한춘기⁷² ▲홍서필⁵⁸ ▲홍종봉⁵⁸

◇商科大學

▲강경만⁵⁸ ▲강영남⁴⁵ ▲강용규⁶⁰
▲고성규⁷⁴ ▲권해동⁷³ ▲김규식⁵⁸
▲김기준⁵⁹ ▲김남택⁶⁶ ▲김도연⁶⁸
▲김무홍⁷⁴ ▲김문한⁶³ ▲김상구⁵⁸
▲김상필⁶⁰ ▲김영호⁶⁴ ▲김원태⁶⁰
▲김윤재⁵⁷ ▲김재진⁶⁰ ▲김정우⁶⁹
▲김정현⁵⁸ ▲김종익⁶⁵ ▲김종찬⁶³
▲김종학⁵⁸ ▲김진의⁶⁵ ▲김진주⁶⁶
▲김창부⁶⁵ ▲김태욱⁶⁴ ▲김현주⁶³
▲김홍배⁷¹ ▲남원일⁷⁴ ▲노영구⁶²
▲박만철⁶² ▲박원준⁶⁷ ▲박은진⁵⁸
▲박찬홍⁵⁶ ▲박풍아⁶⁶ ▲백훈상⁷¹
▲서규상⁵⁷ ▲서동범⁵⁵ ▲손성철⁵⁹
▲신명수⁶⁴ ▲신용태⁶³ ▲심남진⁵³
▲안혜진⁵⁷ ▲엄치섭⁵⁸ ▲엄한섭⁶⁶
▲오상국⁶¹ ▲오상봉⁷⁴ ▲윤상규⁶¹
▲윤용찬⁶⁵ ▲이승로⁵³ ▲이영웅⁶⁴
▲이우택⁶⁷ ▲이운우⁷² ▲이재우⁵⁵
▲이종윤⁶⁹ ▲이택래⁵⁶ ▲이홍준⁵²
▲장명국⁷⁰ ▲전광우⁷³ ▲정상근⁷²
▲정상용⁶⁸ ▲정용웅⁶⁶ ▲정용팔⁵²
▲정종식⁷³ ▲제갈정웅⁷² ▲조근목⁶¹
▲조성구⁵⁴ ▲조재환⁷⁶ ▲조택영⁵⁵
▲차우상⁵¹ ▲채규대⁶⁰ ▲최덕근⁶⁹
▲최명길⁶⁰ ▲최부완⁶⁰ ▲최종훈⁶⁵
▲하영구⁷⁶ ▲황창기⁵⁸ ▲황하현⁵³

◇生活科學大學

▲강영자⁶⁵ ▲강창자⁶¹ ▲고영자⁶⁴
▲김성은⁸⁷ ▲김순오⁵⁹ ▲김옥경⁷⁶

▲김용진⁷⁴ ▲김혜경⁸⁹ ▲류지수⁸⁷
▲백인경⁸⁴ ▲변기원⁸⁰ ▲송윤주⁹⁵
▲안윤진⁹³ ▲이명희⁸⁰ ▲이상희⁸⁴
▲이정덕⁵⁹ ▲이현미⁸⁸ ▲이화숙⁷¹
▲정지인⁸⁹ ▲조정자⁶⁵ ▲조혜경⁷⁴
▲최민자⁷⁸ ▲홍윤정⁹⁵

◇獸醫科大學

▲강경선⁶⁴ ▲김건호⁷⁴ ▲김고명⁶⁰
▲김본원⁶⁷ ▲김영주⁹² ▲김종면⁵⁶
▲김주성⁵⁸ ▲김준삼⁵⁹ ▲김진명⁹⁰
▲김진영⁶⁴ ▲김창수⁶⁸ ▲김판기⁸⁵
▲나종국⁵⁹ ▲명수남⁵⁹ ▲배상호⁶⁸
▲윤민호⁷⁷ ▲윤대걸⁶² ▲이강현⁹¹
▲이성환⁸⁰ ▲이수창⁷¹ ▲정특⁶⁶
▲조기형⁵³ ▲조남인⁶⁹ ▲조수식⁵⁶
▲하배현⁷⁵ ▲한장희⁶⁴ ▲한정우⁹⁰
▲한홍율⁶³ ▲허정희⁶⁶ ▲홍성민⁷⁰

◇藥學大學

▲강서⁶² ▲구미진¹⁰ ▲김기덕⁶⁹
▲김병식⁵⁶ ▲김영식⁷⁸ ▲김영호⁵²
▲김윤숙⁷⁶ ▲김재백⁵⁶ ▲김정수⁶²
▲김형국⁶² ▲노태선⁴⁸ ▲맹한주¹⁰
▲민항원⁹⁵ ▲박경래⁶¹ ▲박명환⁷⁷
▲박용배⁵⁸ ▲박현아⁸⁶ ▲배소영⁹⁸
▲배옥남⁹⁹ ▲서원교⁸⁴ ▲손세은⁵⁹
▲손현아⁹² ▲안양찬⁵⁷ ▲양승국⁵⁷
▲엄태윤⁶³ ▲윤경순⁵³ ▲이복선⁵⁵
▲이선구⁹⁴ ▲이성우⁷⁴ ▲이수임⁷⁹
▲이승후⁸¹ ▲이일숙⁵⁹ ▲이재현⁴⁸
▲이재현⁸¹ ▲이종규⁷¹ ▲이준엽⁹⁹
▲이태희⁸⁹ ▲이해돈⁷⁵ ▲이희운⁷¹
▲정만익⁵¹ ▲조남주⁶⁵ ▲조영환⁷⁵
▲최민식¹⁰ ▲최현주⁵⁸ ▲편승범⁵⁵
▲한진호⁶³ ▲한길길⁶⁷ ▲현영우⁷¹
▲홍성한⁸⁰ ▲홍순태⁷¹ ▲황광진⁶⁹
▲황봉자⁶⁵

◇音樂大學

▲강덕원⁷³ ▲강신자⁶⁰ ▲고현선⁹⁶
▲곽미현⁸⁶ ▲곽안나⁸⁹ ▲김민례⁷⁰
▲김연희⁹⁴ ▲김오경⁷⁹ ▲김한식⁷⁴
▲김희자⁵⁹ ▲나광자⁶⁴ ▲노주채⁷¹
▲문정원⁹² ▲박문희⁶³ ▲박정진⁸⁵
▲박종서⁸² ▲방미영⁷⁹ ▲배은숙⁸⁰
▲백사론⁹⁵ ▲백의현⁶⁵ ▲서진희⁸⁹
▲송명익⁴⁸ ▲안형일⁵³ ▲안희정⁸⁹
▲양연섭⁷⁵ ▲양혜숙⁷² ▲오윤정⁹¹
▲우광재⁷⁸ ▲원이경⁶¹ ▲유행웅⁶⁴
▲윤기숙⁸⁶ ▲윤민호⁸⁰ ▲이경희⁶⁷
▲이명화⁵⁹ ▲이승혜⁹⁶ ▲이옥희⁶⁴
▲이인희⁶² ▲이종희⁹³ ▲임종배⁸³
▲장원국⁹² ▲장창환⁶¹ ▲전성환⁷²
▲정선영⁹⁶ ▲최조웅⁶³ ▲한명희⁶⁴
▲한민숙⁶⁷ ▲한상우⁶² ▲홍종진⁷²

◇醫科大學

▲고응린⁵⁷ ▲고택수⁵⁶ ▲김길남⁷⁵
▲김동현⁸⁷ ▲김성식⁵⁷ ▲김성진⁸³
▲김우영⁴⁹ ▲김윤수⁶⁴ ▲김주성⁸⁷
▲김진하⁴⁷ ▲김철웅⁷⁸ ▲김치형⁸⁹
▲김태홍⁸⁴ ▲김형건⁸⁵ ▲노민⁸⁴
▲박원웅⁷⁸ ▲박주배⁷⁴ ▲서동희⁹²
▲서정돈⁶⁷ ▲서필원⁸⁵ ▲송재원⁸¹
▲신미자⁶⁵ ▲신찬수⁸⁷ ▲안재용⁵⁰
▲오석환⁵¹ ▲위상오⁸⁴ ▲유권⁸²
▲유영철⁶¹ ▲윤세희⁷⁶ ▲윤정우⁶⁵
▲이남수⁵⁰ ▲이도훈⁸⁶ ▲이명복³⁹
▲이무훈⁸¹ ▲이민성⁷⁰ ▲이원종⁸¹
▲이춘식⁶⁷ ▲이혁표⁸⁸ ▲이현무⁸⁴
▲이희자⁵⁵ ▲임현명⁶⁰ ▲장학진⁷⁰
▲전병훈⁵² ▲정남화⁸² ▲정승기⁷⁶
▲조병주⁵² ▲주승재⁸⁴ ▲주일중⁸⁴
▲최덕환⁸¹ ▲최동섭⁷⁵ ▲최준호⁷⁵

▲최택규⁵⁰ ▲최하진⁵¹ ▲최희옥⁵⁷
▲한규선⁷⁸ ▲한석상⁵⁸ ▲함병문⁷²
▲홍순관⁸⁴ ▲홍종면⁸⁵ ▲홍종욱⁸⁵
▲홍태홍⁷⁸

◇齒科大學

▲강영작⁷³ ▲강현규⁶¹ ▲권순배⁸⁶
▲권영만⁸⁴ ▲김광희⁵⁶ ▲김병민⁸⁷
▲김석연⁷⁴ ▲김원표⁷⁴ ▲김정민⁸⁹
▲김정수⁵⁸ ▲김종문⁵⁶ ▲김종훈⁸³
▲김진수⁷⁶ ▲김형배⁸⁴ ▲김효순⁷⁵
▲노중준⁴³ ▲도정욱⁸⁰ ▲류준곤⁸⁵
▲박기현⁶⁸ ▲박두환⁵⁷ ▲박명섭⁸⁴
▲박연천⁷⁹ ▲박우찬⁷² ▲박정봉⁶⁶
▲박종훈⁵⁴ ▲박홍수⁵⁵ ▲석광덕⁷⁵
▲성철제⁷⁰ ▲안규소⁷² ▲안영두⁸⁷
▲양상덕⁸³ ▲양재희⁸¹ ▲여종환⁶⁰
▲오경서⁵⁸ ▲원문정⁷⁷ ▲윤한석⁶⁴
▲이경우⁷⁷ ▲이기식⁷⁰ ▲이민영⁶²
▲이상용⁸⁸ ▲이수종⁶⁷ ▲이용팔⁴²
▲이인창⁶⁰ ▲이해철⁶¹ ▲장영도⁸⁷
▲장은하⁸⁹ ▲전현희⁹⁰ ▲정규배⁸¹
▲정명선⁴⁹ ▲조효선⁷⁶ ▲채영제⁵⁵
▲최복국⁶⁶ ▲한보균⁷⁵ ▲허준석⁸⁸
▲황준⁶⁹ ▲황태주⁸⁹

◇大學院

▲구자균⁸⁷ ▲김도현⁷⁶ ▲김봉환⁸⁵
▲김상균⁹⁸ ▲김선주¹⁰ ▲김재균⁶⁷
▲김준기⁸³ ▲김창곤⁸⁷ ▲김호균⁸¹
▲김홍섭⁸⁵ ▲김희수⁸⁵ ▲박기준⁸⁶
▲백상창⁷⁴ ▲변지영⁹³ ▲손성호⁷⁸
▲송석훈⁷⁸ ▲송승욱⁷⁶ ▲송준석⁹⁸
▲오문성⁸⁶ ▲원상봉⁸³ ▲이만열⁶⁸
▲정태우⁷⁸ ▲조은영⁹⁸ ▲조재연⁸²
▲조현래⁷⁵ ▲지병전⁸⁴ ▲최재원⁸⁹
▲하종규⁷⁷ ▲허웅⁶⁸ ▲홍정수⁹⁵

◇經營大學院

▲권영천⁶⁷ ▲김연식⁷² ▲박기범⁶⁸
▲정홍길⁹¹ ▲조의식⁹³ ▲지치상⁹²

◇教育大學院

▲정병관⁶⁹ ▲현덕규⁷⁰

◇保健大學院

▲강인구⁷¹ ▲권영호⁷¹ ▲문성환⁹⁸
▲양정희⁸⁰ ▲이태희⁹⁰ ▲이형진⁸⁷
▲정건작⁹⁰ ▲정경수⁷⁴ ▲함기선⁶⁷

◇司法大學院

▲유지담⁶⁷ ▲전도영⁷⁰

◇新聞大學院

▲김기덕⁷² ▲심재주⁶⁸

◇行政大學院

▲김영식⁸⁷ ▲신상준⁶⁶ ▲양인모⁷³
▲윤영대⁷⁴ ▲이주성⁸⁵ ▲장재철⁷⁴
▲차정균¹⁰ ▲최석식⁸⁴ ▲홍석철⁶⁴

◇環境大學院

▲김동일⁸² ▲박기영¹⁰ ▲윤용희⁸⁵
▲이재욱⁸¹ ▲이태수⁷⁴ ▲임재민⁹²
▲정양희⁸² ▲조근형⁸¹ ▲홍성표⁷⁶

◇최고경영자과정

▲고시목⁸ ▲곽진훈¹⁸ ▲금유식⁵²
▲김기창²² ▲김동호¹⁵ ▲김영수²⁶
▲김원태⁵² ▲김윤기⁹ ▲김익규²³
▲김익현⁵² ▲김한용¹¹ ▲김홍구⁴⁹
▲나익수³⁸ ▲노재천³ ▲마용도⁴⁸
▲문만수³² ▲문창복⁵² ▲박근학⁵¹
▲박영숙³¹ ▲박형미⁵² ▲배창환³⁹
▲백상태⁵¹ ▲서강우³ ▲서만규⁴⁷

▲서영태⁴⁸ ▲성영창²⁶ ▲손성섭⁴³
▲송석상⁴⁷ ▲송장식³⁴ ▲송준강³³
▲송진철⁵² ▲신대진²⁰ ▲신완균⁴⁵
▲심성보⁵² ▲오대수⁴⁵ ▲왕기철⁴²
▲유성규⁴⁴ ▲유재수⁸ ▲유재천¹¹
▲윤계웅⁵² ▲윤덕영³⁹ ▲윤동균⁴⁶
▲윤의숙⁵² ▲윤태하³⁴ ▲윤희진¹⁸
▲이건일²⁹ ▲이광우³⁶ ▲이근호⁵²
▲이범우⁵² ▲이성길³⁴ ▲이종순⁵²
▲이진선³⁶ ▲이행기⁴⁸ ▲이현규⁵²
▲임창열³³ ▲장두섭¹⁷ ▲장영수⁴⁶
▲전정척⁴⁷ ▲정건택²¹ ▲정필모²
▲진성섭¹⁰ ▲최건영³⁵ ▲최수일⁵²
▲최영수⁴⁶ ▲최영주³⁷ ▲한진철³²
▲한현수³¹ ▲홍기욱⁴⁵ ▲홍영재⁴⁸
▲황교선²⁹

◇최고산업전략과정

▲강형자²⁴ ▲고규곤²⁰ ▲김남준²⁵
▲김두경¹⁶ ▲김정원¹⁸ ▲김종수²⁵
▲김진구¹⁸ ▲김진원²⁶ ▲박평서¹¹
▲석도길²⁶ ▲성기탁²⁰ ▲양재학⁶
▲염석훈⁷ ▲염정석²⁵ ▲오세희²
▲유재수¹⁴ ▲이강덕¹⁷ ▲이상운¹⁶
▲이영삼⁵ ▲이왕열⁷ ▲이재서¹¹
▲이희원²⁵ ▲장용현¹³ ▲전재홍¹⁷
▲정운경⁶ ▲조태웅¹⁸ ▲최문규²
▲최순범¹² ▲최영우¹² ▲최영진¹⁹
▲최웅진²⁰ ▲최재오¹⁰ ▲최정호²¹
▲한미학⁵ ▲황순철²³

◇국가정책과정

▲구양술⁵² ▲권도중⁴⁹ ▲권해옥¹⁶
▲권혁창³⁴ ▲김기영⁴⁹ ▲김득만¹²
▲김영일⁴¹ ▲김우복⁴ ▲김종연²⁹
▲김철호⁴⁶ ▲김태완⁴⁴ ▲김홍원³⁵
▲박용암⁴³ ▲박인호⁴³ ▲박태유⁴⁷
▲변웅전⁴⁴ ▲서광선³¹ ▲서정도³⁵
▲서정만¹⁸ ▲서찬교⁴⁰ ▲성경순²⁹
▲송봉식⁵² ▲유나준⁴⁵ ▲이관표¹²
▲이광래⁵⁰ ▲이규정¹³ ▲이영화¹¹
▲이종인⁵³ ▲전덕성²¹ ▲정동우⁶
▲조두호⁵⁰ ▲조인숙⁴⁸ ▲지태욱²⁰
▲차기문⁵⁰ ▲차영준⁵² ▲최귀남⁷
▲최후집³⁹ ▲한기호⁵²

◇고급금융과정

▲강호식² ▲권덕진¹⁷ ▲박길태¹¹
▲심원경⁵ ▲윤홍기¹⁰ ▲이수현⁸
▲이주안¹⁹ ▲이충원¹⁷ ▲이관철³
▲정철수¹¹ ▲최승훈³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곽순영² ▲문해란⁷ ▲박영종⁵
▲오성진⁴ ▲원창희⁸ ▲임득현⁶
▲정진근⁴ ▲차원갑⁵ ▲황호순¹

◇가정간호수습과정

▲노분영² ▲양재선⁹ ▲이도영⁵
▲이춘제⁵ ▲정미영⁹ ▲최순일⁸
▲현인자⁸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김미영⁷ ▲김성대⁴ ▲김승태⁸
▲김용국⁷ ▲박현진¹ ▲서윤호³
▲윤정식¹ ▲윤효현⁴ ▲이용⁶
▲이한주² ▲임승일⁷ ▲임희수⁷
▲정해수¹ ▲조성구⁷

◇보건의료정책최고관리자과정

▲권강주³ ▲김영권⁶ ▲김행진⁷
▲선덕남⁴ ▲어준선⁵ ▲염송옥⁴
▲이철희⁴

◇해양정책최고과정

▲김명광² ▲송만순¹ ▲이신복¹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강덕근⁴ ▲권대영¹ ▲김동현¹⁰
▲김영채⁴ ▲김정의⁵ ▲민장홍⁹
▲박경숙⁸ ▲박병휴¹⁰ ▲박석순²
▲박종철³ ▲서민웅⁷ ▲신병곤³
▲심상정³ ▲안병선⁴ ▲여찬기²
▲이기수¹ ▲이동오⁷ ▲이일로¹
▲이재희⁹ ▲이종명² ▲이현석¹
▲정희자⁸ ▲조정구⁸ ▲조한수¹
▲지영만⁸ ▲최천식⁷

합 계 : 76,761,290원
입회비 : 16,440,000원
총 계 : 586,639,242원

“동창회 국민패스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2002년 8~10월 발급 회원 명단)

개 인

◇人文大學

▲이숙희⁸⁴

◇社會科學大學

▲김동현⁶⁹ ▲이세형⁶⁸ ▲황규호⁸⁷

◇自然科學大學

▲고관수⁹⁴ ▲이준석

동문의 소리

「경청」·「책임」은 지도자의 중요 덕목

朴聖權(76년 師大卒)파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방송국 PD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이래 대기업 간부, 중소기업 임원·대표에 이르기까지 많은 상사들, 지도층 인사들을 만났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필자 나름의 기준에 부합하는 존경할만한 리더를 만나는 행운은 없었고, 단지 反面教師로 삼았을 뿐이라는 점이다.

많은 동문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사회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인화단결이 부족하다」는 등의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

을 의미하는가?

단어 그대로 풀이하면 리더십(Leadership)이란 경청(Listen), 희망과 비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Educate), 몸소 실천을 통한 조언과 충고(Assist), 조직의 목표와 방향을 지시(Direct), 일의 성과와 결과에 대한 적절한 평가(Evaluate), 실패에 대한 책임(Responsible), 든든한 지원과 격려(Support), 다양한 의견의 조화와 조정(Harmonize), 목표와 비전에 대한 관심 유발(Interest), 성과에 대한 칭찬(Praise)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자질 중에

서 지도자가 특히 중시해야 할 덕목은 「경청」과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철학자의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두 귀와 한 입을 만든 이유는 많이 듣고 말은 적게 하라는 의미」라는 말이나, 「사람이 가장 흥이 날 때는 부모님,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말을 경청해 줄 때」라는 어느 심리학자의 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는 관심과 애정,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층 나아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 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 또한 매우 중요

하다.

그리고 지도자는 조직에서 일이 잘못됐을 때 과감하게 책임을 질 줄 아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지도자의 위치는 투철한 자기희생과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는 「NOBLESSE OBLIGEE」, 즉 지도자를 포함한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은 일반인보다 강한 책임감과 높은 도덕적 품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난 1997년 IMF 한파가 몰아쳤을 때, 서구는 경제 위기를 몰고 온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으로 지도자들의 희생정신과 솔선수범

의 부족을 꼽기도 했다.

요즘 문득 「見危致命(나라가 위태로우면 목숨을 던진다)」, 「訥於言 敏於行(말보다 행동을 먼저 행하여 모범을 보인다)」, 「先公後私(공적인 일을 사적인 일에 우선시킨다)」를 최고의 덕목으로 여긴 옛 선비들의 참된 지도자 정신이 떠오른다.

중국殷나라의 湯王은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참으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이라는 문구를 세숫대에 새겨놓고 매일 금언으로 삼았다고 한다.

기차여행은 풍부한 情緒 일깨워

李承鎬(02년 大學院卒)가톨릭치과병원 대표원장



추석 지나고 시월도 중순, 무더위 질푸르던 녹음 그 절정기를 지났고 평평한 바닥이 점차 노랗게 변해 가는 계절.

들관 곳곳 아직 푸른빛이 더한 곳도 있으나 이미 노란 색으로 변해버린 논, 네모난 논마다 벼 익는 모습이 서로 조금씩 다르고 지난 여름 몇 차례 강한 태풍에 쓰러진 채 아예 누워버린 모습도 군데군데 보인다. 차창 밖 가까이 일찌감치 빨갛게 물이 든 나무 잎사귀들, 저만큼 멀리 질푸른 산 녹음조차 어쩔지 습기를 빼앗긴 건조한 모습

이다.

열차는 턱턱 턱턱 규칙적인 소리를 내면서 연신 앞으로 달려 나아가고 조금 전까지 수면위로 피어오르던 물안개 서로 화학적인 중합반응이라도 일으킨 것인가! 어느 사이에 온 사방 천지간에 모두가 짙은 안개 속이다.

굳어진 내 목은 그대로 오른 쪽으로 돌려져 있는데 내린 원발 대신에 오른 발을 좌석위로 올렸고 그 무릎 위로 오른쪽 팔꿈치를 얹었다. 건너편 왼쪽좌석에는 예쁘게 잠을 자는 젊은

여자, 내 자리 뒤편에는 어떤 신사 그 사람도 역시 잠을 자고, 더욱 뒤편 어느 자리에서도 누군가가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듯 코를 고는 소리가 꽤나 리드미컬하다.

양평역, 그리고 용문역을 차례로 지났고, 목적지 도착 예정시간은 오전 9시 44분, 이제 20분 정도를 더 가서 원주역에서 내리면 된다.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았으나 햇빛은 다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차창 밖에는 베어서 갈아엎어 둔 벼짚단 위로는 김이 모락모락...

흡사 지나온 양수리 수면 위 물안개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약 12년 전 도미,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에 소재하는 베일러치대 치주과에서 수련을 하고, 귀국해 강남에서 자리를 잡고 일을 해 왔다. 치주과 임상에서 보다 예지성 높은 전문적인 치료를 도모, 이미 많이 상해져 버린 치아라 할지라도 희망 없어 보이는 그 치아들을 단순히 희생시키는 대신에 가급적 자연치아를 보존하게 하면서 남다른 보람과 임상생활에서 재미를 느껴 왔었다.

원래 나의 전공은 구강악안면외과학인데 서울대 외래교수로 일을 시작하면서 다른 치과대학에도 수련의들을 위한 특강연사로 또는 개원의를 위한 임상교육에 일부나마 참여를 하게 됐다.

원주는 공기가 맑고 사람들이 무척 순박한 고장이다. 그리고 기차여행은 어린 시절의 다양한 기억과 함께 가끔 우리네 정서에 크게 도움이 되는 바가 있다.

오해·편견으로 깨닫지 못한 진실

丁美妍(8기 CHCN)한국간호학회 전임강사



가끔씩 우리들은 확실히 알지 못해 빚어지는 오해와 편견 때문에 인간 관계가 부러지고, 현실과의 괴리감을 맛보기도 한다.

그 날은 옥수동에 있는 환자를 방문하는 날이었다. 그 환자의 집은 아주 좁은 골목길을 지나야 했는데 2미터 전방 즈음에서 갑자기 그 옆집에 문이 열리더니 집채만한 개가 고개를 내밀고 왕왕 짖어대며 나를 당장이라도 덮칠 것만 같았다.

아줌마, 아줌마를 외치며 『도와주세요!』를 반복해도 어느 누

구 하나 내다보는 이 없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그 개는 짖기만 할 뿐, 나를 물려고 나오지는 않았다. 그 개는 죽어라 짖어대고,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미동도 않은 채 그 개를 증오하며 노력하고 있었다.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개는 당장 내게로 달려들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고, 그 개의 흥분이 가라앉은 후에야 움직일 수 있었는데... 환자의 집은 그 집을 지나쳐야 했기에 떨어지지 않는 발을 떨면서 겨우 걸어가 보니 그 개는 아주 긴 끈에 묶여있

어, 목만 내밀고 짖던 개의 끈은 내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어찌나 어이가 없고 내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마치 허깨비를 보며 허우적거린 꼴이 됐던 것이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은 상황판단에 대한 오류로 오해와 편견이 빚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어떠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현실 상황을 재빠르게 인지하는 상황판단 능력과 문제해결을 위한 지혜로운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다.

매 순간 우리는 자신이 느끼

는 것에 대한 검증은 잊을 때가 있다. 물론 그런 것들은 지나친 자기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누구나 자신만의 왜곡된 지식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해 잘못된 확신인 편견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오류와 편견으로 인해 빚어지는 틈새들은 삶을 서글프게 한다. 자신의 비워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지식을 익혀 각기 과대망상의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능이 끝나고, 현실의 두터운 벽 속에서 살다 가버린 어느 초

등학생의 슬픈 죽음의 소식도 접했다. 우리는 너무 과대 포장된 「성공」이라는 단어 속에 갇혀 내 안의 소중함과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봐야 할 것이다.

황혼이 밀려오는 저녁 시간이다. 어스름 황혼이 밀려오듯, 생의 황혼이 다가오기 전에 현재 삶 속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키질을 하듯 걸러내어 진실로 소망하는 것들을 위해 남은 생을 엮어가야겠다.